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변화 구조 분석

-전북을 중심으로-

이강진

1. 서론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로서 정부가 특정 시점에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국가가 주관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총수와 그 개별적 특성을 일일이 조사하는 전수조사로서 이의 활용 범위는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되는 등 실로 광범위하다. 인구총조사는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대한민국영토내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2005인구주택총조사는 17회 재로 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준시점은 조사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하였으며 인구총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으로 ①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상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②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로 체재중인 자와 그 가족, ③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중 군인·군속·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중인 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다. 주택총조사는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대한민국영토내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국군과 유엔군의 병사, 경찰서의 유치장,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및 보호관찰소 포함)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포함)을 제외한다.¹⁾

본 연구는 1995년, 2000년, 그리고 2005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인구변화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인구부문의 구조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인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www.census.go.kr

2.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징

2-1. 조사 항목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실시년도마다 일부 조사항목이 변경되어오고 있으며 2005년에 개정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른 조사항목은 인구총조사 부문과 주택총조사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구총조사는 ①조사대상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 등 인구특성에 관한 사항, ②조사대상자의 출생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③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④조사대상자의 가구구성형태, 주거시설형태, 사용방수 및 점유형태 등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⑤기타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한다.

주택총조사는 ①주택의 종류에 관한 사항, ②주택의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수, 건축연도, 편의시설 등 주택의 구조·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③기타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한다.

2-2. 2000년 총조사와 조사 항목 비교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수요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항목을 전수와 표본으로 나누어 총44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표 2-1>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변화(전수항목)

구분	2000년	2005년	
		계속 조사	신규(추가)
계	20개 항목	17개 항목	4개 항목
인구	성명, 본관,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교육정도, 출생지, 혼인상태(8)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6)	종교(1) 이산가족(1)
가구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 종류, 주인대표 가구여부(7)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수도시설, 점유형태, 주인가구여부 +주택소유여부(5)	거주층(1), 난방시설(1), 주택소유여부(0)
주택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연도, 편의시설수(5)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연도, 편의시설수, 거처의 종류+단독주택 종류+건물층수(6)	건물층수(0)

자료 : www.census.go.kr(2006)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수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21개 항목을, 표본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수항목 외 23개 항목(시·도별특성항목 3개 포함)을 추가 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에 관해 24개(전수 8개, 표본 16개) 항목, 가구에 관해 11개(전수 7개, 표본 4개) 항목, 주택에 관해 6개(전수 6개) 항목, 시·도별 특성항목 3개 항목, 총 44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표본항목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본항목은 2000년의 30개에서 2005년에는 신규로 추가되는 16개와 신규로 추가되는 4개 항목을 합하여 총 20개로 2000년에 비해 10개의 항목이 줄어들었다.

<표 2-2>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변화(표본항목)

구분	2000년	2005년	
		계속 조사	신규(추가)
계	30개 항목	16개 항목	4개 항목
인구	전공분야, 아동보육상태,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컴퓨터활용상태, 인터넷활용상태, 개인휴대용통신기기,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자의 지위, 산업, 직업, <u>현직업 근무연수</u> , 총출생아수, <u>자녀거주장소</u> , 생계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여부(21)	아동보육실태, 5년전 거주지,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자 지위, 산업, 직업, 총출생아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생계수단+주부양자), (12)	혼인년월(1), <u>추가계획자녀수</u> (1), <u>활동제약(장애)</u> (1), <u>근로장소</u> (1) ※ 시도 특성항목: 3개
가구	거주기간, <u>취사연료</u> , 난방시설, 상수도 시설, <u>식수사용 형태</u>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시설, 임차료(9)	거주기간,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시설, 주택 임차료(4)	
주택	-		

자료 : www.census.go.kr(2006) 주) 밑줄은 2005년 조사에서 제외 또는 통합된 항목임

2005년에는 2000년의 관심사였던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활용에 대한 사항이 줄어들었으며 혼인상태 및 계획자녀의 수 등 인구출산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가구분야에서는 기초시설에 대한 항목이 대폭 삭제되어 가구에 대한 현실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조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별 특성화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12개의 항목 가운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의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가장 선호된 항목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였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후준비방법 그리고 거주지 이동사유에 대한 항목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3>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시도특성항목)

조사 항목안	조사 희망 시·도
(1) 첫 자녀 및 막내자녀 출산시기	서울, 경기, 경남
(2) 현거주지 거주사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경기
(3) 최초 주택마련시기 및 방법	대구, 인천, 충북, 충남
(4) 식수사용형태	대구, 충북
(5) 거주지이동사유	서울,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6) 노후준비방법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7) 지역생활여건만족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8) 인터넷 사용여부	인천, 강원, 제주
(9) 간호·수발자 여부	부산, 대전, 울산, 충남, 경남
(10) 가구생활비원천	경북, 제주
(11) 자원봉사활동	대전
(12) 노인복지시설 입소 여부	울산

자 료 : www.census.go.kr(2006)

2-3.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이사항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개인생활 침해 및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행하는데 인터넷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개인생활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인터넷 조사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바라보는 관심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의 높은 IT기술력과 통계조사와의 결합 과정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 시도 특성항목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차별적인 통계의 생산 요구에 부응하였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역에서 지역고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인구구조 분석

인구는 특정시점에서의 어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총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내의 주민수를 말하기도 한다. 인구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첫째, 인구는 지표상에 있어 공간변화의 원천이자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사회현상과 그 변화과정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근본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둘째, 인구는 경제적으로 식량과 자원의 수요와 배분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지역의 생산력과 경제문제에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인구의 분포는 교육, 주택, 지역 개발 등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특정지역의 인구지표는 곧 지역의 사회현상을 비교·평가하는 구체적 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진다.

인구구조는 인간의 특성을 연령, 소득, 학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특징과 조건에 따라 구분된 일정한 지역, 일정한 시점의 인구 구성부분들을 반영한다²⁾.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그 구성부분들의 차지하는 인구수에 의하여 각 구성부분의 비중관계가 밝혀지며 바로 이러한 수량관계로서 인구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인구구조분석은 여러 지역의 비교연구와 지역의 성장 및 사회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진다. 인구구조의 분류는 성별, 연령별, 인종별 등 개인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산업 등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고 생활 속에서 얻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1. 전라북도 인구 현황

(1) 전라북도 인구현황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는 47,041,413명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구를 나타낸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서 2005년에 들어 서울의 인구수를 능가하였다. 지속적인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서울의 인구를 넘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한편, 경남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현상은 울산광역시의 분리에 기인을 한 것이다.

2000-2005년 기간 동안 인구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9.0%로 가장 큰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5.7%로 두 번째로 큰 감소추세를 보였다.

2) 리기성, 『인구학개론』, 한국문화사, 1999년.

전라북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13,319명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108,360명이 전복을 떠났다. 전라북도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 4.3%, 2000년4.1%에서 2005년에는 3.8%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인구감소율은 2000년에는 시도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2005년 격차는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국보다 큰 인구감소율로 인하여 전국대비 인구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다.

〈표 3-1〉 시도별 인구현황 및 변화(인구주택총조사자료)

	총인구수			인구비중			인구증가율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2000-2005
전국	44,553,710	45,985,289	47,041,434	100.0	100.0	100.0	2.3
서울특별시	10,217,177	9,853,972	9,762,546	22.9	21.4	20.8	-0.9
부산광역시	3,809,618	3,655,437	3,512,547	8.6	7.9	7.5	-3.9
대구광역시	2,445,288	2,473,990	2,456,016	5.5	5.4	5.2	-0.7
인천광역시	2,304,176	2,466,338	2,517,680	5.2	5.4	5.4	2.1
광주광역시	1,257,063	1,350,948	1,413,644	2.8	2.9	3.0	4.6
대전광역시	1,270,873	1,365,961	1,438,551	2.9	3.0	3.1	5.3
울산광역시	-	1,012,110	1,044,934	-	2.2	2.2	3.2
경기도	7,637,942	8,937,752	10,341,006	17.1	19.4	22.0	15.7
강원도	1,465,279	1,484,536	1,460,770	3.3	3.2	3.1	-1.6
충청북도	1,395,460	1,462,621	1,453,872	3.1	3.2	3.1	-0.6
충청남도	1,765,021	1,840,410	1,879,417	4.0	4.0	4.0	2.1
전라북도	1,900,558	1,887,239	1,778,879	4.3	4.1	3.8	-5.7
전라남도	2,066,109	1,994,287	1,815,174	4.6	4.3	3.9	-9.0
경상북도	2,672,498	2,716,218	2,594,719	6.0	5.9	5.5	-4.5
경상남도	3,841,553	2,970,929	3,040,993	8.6	6.5	6.5	2.4
제주도	505,095	512,541	530,686	1.1	1.1	1.1	3.5

자 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 시/군별 인구현황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현황(2005)을 보면 전주시가 인구수 622,092명, 인구비중 35.0%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익산시가 306,974명(17.3%), 군산시가 249,212명(14.0%)으로 뒤따르고 있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등 4개 시에서만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10만명 이하의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시지역은 남원시로 인구는 85,828명이며 전북내에서 4.8%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군지역은 완주군으로 인구 79,10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적은 군지역은 장수군으로 인구가 20,486명이며 점유비율은 1.2%이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3개 시 인구의 합은 전라북도 인구의 66.2%에 이르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의 시·군간 인구분포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성비를 보면 전라북도 전체는 성비가 96.7로 나타났고 군산시와 완주군의 경우에만

100이 넘고 나머지 시군은 100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시와 완주군의 경우에는 군산산업단지
와 완주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남성직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시군별 인구변화를 보면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유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시/군의 1995-2005년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주시가 유일하며 인구증가율은 10.5%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감소는 시보다는 군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임실군으로 1995년 대비 30.9%의 인구감소를 나타냈으며 10년 동안 11,506명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김제시로서 25,031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읍시(-23,568명), 고창군(-20,757명), 남원시(-17,699명), 부안군(-17,182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2000-2005년)의 시/군의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1.0% 증가, 완주군이 0.2%증가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00-2005년의 기간동안 가장 큰 인구감소율을 기록한 지역은 진안군으로서 (-)20.9%의 인구감소율과 함께 6,308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동안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군산시로서 22,917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익산시(-15,662명), 정읍시(-13,476명), 김제시(-12,052명), 부안군(-9,381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변화 추이

	총인구수			인구증가율			인구비중		
	1995	2000	2005	1995-2000	2000-2005	1995-2005	1995	2000	2005
전라북도	1,900,558	1,887,239	1,778,879	-0.7	-5.7	-6.4	100.0	100.0	100.0
전주시	562,832	615,804	622,092	9.4	1.0	10.5	29.6	32.6	35.0
군산시	266,340	272,129	249,212	2.2	-8.4	-6.4	14.0	14.4	14.0
익산시	322,134	322,636	306,974	0.2	-4.9	-4.7	16.9	17.1	17.3
정읍시	138,984	128,892	115,416	-7.3	-10.5	-17.0	7.3	6.8	6.5
남원시	103,527	94,810	85,828	-8.4	-9.5	-17.1	5.4	5.0	4.8
김제시	115,407	102,428	90,376	-11.2	-11.8	-21.7	6.1	5.4	5.1
완주군	81,280	78,964	79,104	-2.8	0.2	-2.7	4.3	4.2	4.4
진안군	32,070	30,223	23,915	-5.8	-20.9	-25.4	1.7	1.6	1.3
무주군	29,426	27,430	22,310	-6.8	-18.7	-24.2	1.5	1.5	1.3
장수군	26,881	23,266	20,486	-13.4	-11.9	-23.8	1.4	1.2	1.2
임실군	37,188	30,743	25,682	-17.3	-16.5	-30.9	2.0	1.6	1.4
순창군	35,316	30,447	26,250	-13.8	-13.8	-25.7	1.9	1.6	1.5
고창군	76,751	64,846	55,994	-15.5	-13.7	-27.0	4.0	3.4	3.1
부안군	72,422	64,621	55,240	-10.8	-14.5	-23.7	3.8	3.4	3.1

자 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3-2. 연령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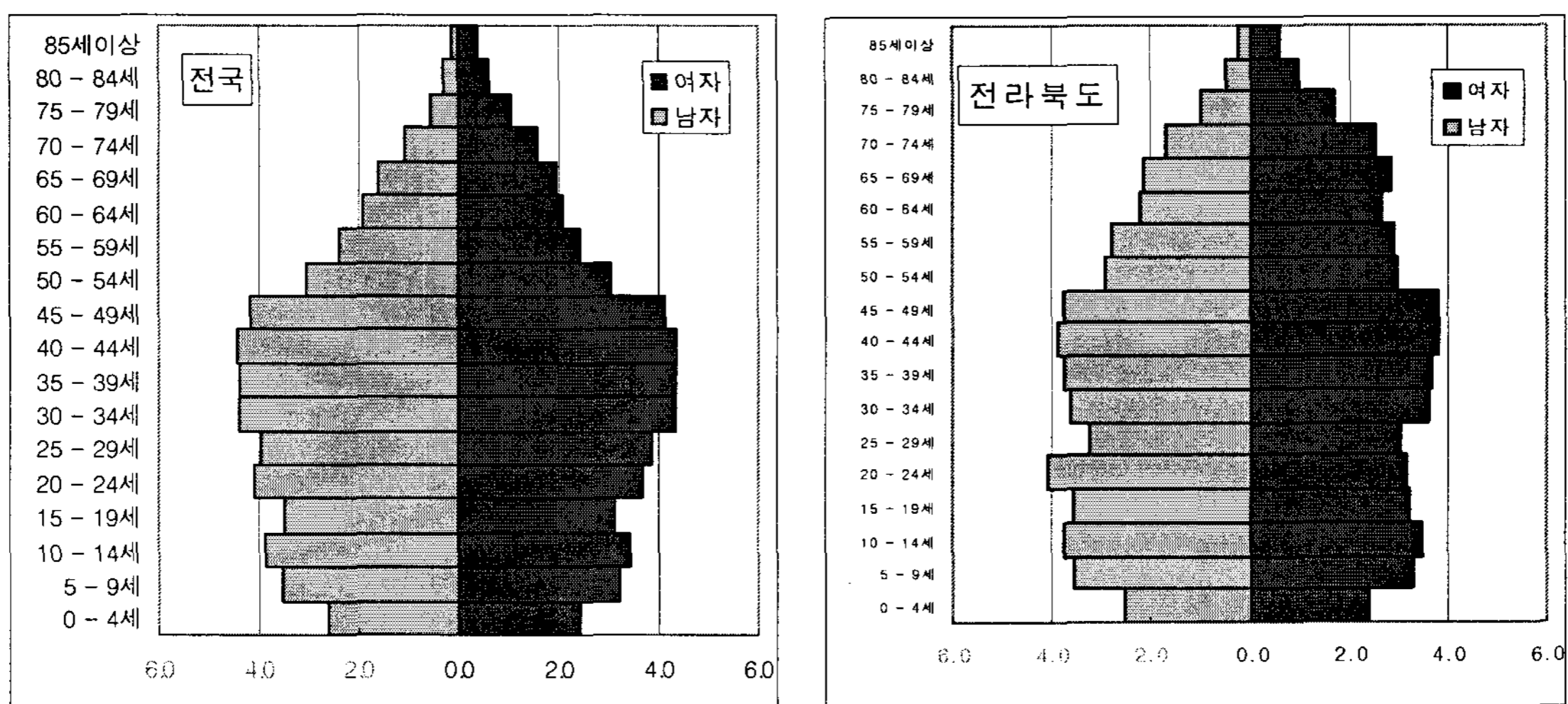
(1)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전국과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경우 30대, 40대의 인구가 많으며,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추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내며 이는 소산소사의 선진국형 인구피라미드인 종형에서 출생률이 더욱 낮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유형이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30대, 40대 인구가 많으며, 노령인구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피라미드는 25~29세연령의 유출로 인한 표주박형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과 전라북도에서 연령별 계급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은 40~44세 구간으로 전국은 8.8%, 전라북도는 7.7%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를 보면 20~54세 사이의 인구비중이 전국의 인구비중보다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생산가능연령의 감소를 나타내는 표주박형 인구피라미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구조 형태는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조의 꼬리부분은 전국보다 높아,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징중의 하나는 10-14세 연령구간에서부터 25-29세 연령구

<그림 3-1> 전국과 전라북도 인구피라미드(2005년)



간까지 연도별 그래프의 상하간격이 큰 것을 파악할 수 있고 25-29세연령 구간에서 전국(7.8%)과 전라북도(6.2%)의 연령별 비중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1.6% 차이). 이는 최근 10년간 10-29세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증감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10-29세 사이의 연령구간에서는 20%이상의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율이 30%를 넘는 구간은 15-19세구간(-34.6%), 20-24세 구간(-30.6%)으로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구 분	연령별 인구수			연령별 인구증감률		
	1995	2000	2005	1995-2000	2000-2005	1995-2005
0 - 4 세	125,674	123,995	87,770	8.7	-29.2	-30.2
5 - 9 세	123,117	133,886	121,655	-25.7	-9.1	-1.2
10 - 14세	167,250	124,303	129,117	-13.8	3.9	-22.8
15 - 19세	184,385	158,984	120,556	-15.4	-24.2	-34.6
20 - 24세	186,716	157,933	129,527	5.0	-18.0	-30.6
25 - 29세	138,525	145,461	110,990	-1.4	-23.7	-19.9
30 - 34세	140,296	138,350	128,407	-0.3	-7.2	-8.5
35 - 39세	145,461	144,973	131,767	23.4	-9.1	-9.4
40 - 44세	115,364	142,390	136,821	0.9	-3.9	18.6
45 - 49세	110,766	111,753	135,364	9.6	21.1	22.2
50 - 54세	96,543	105,767	105,658	-10.0	-0.1	9.4
55 - 59세	102,486	92,234	101,226	4.6	9.7	-1.2
60 - 64세	91,358	95,551	87,136	23.4	-8.8	-4.6
65 - 69세	67,834	83,699	88,978	21.0	6.3	31.2
70 - 74세	48,501	58,688	75,026	22.2	27.8	54.7
75 - 79세	30,811	37,665	47,903	25.8	27.2	55.5
80 - 84세	15,926	20,040	26,108	21.0	30.3	63.9
85세 이상	9,495	11,487	14,870	21.0	29.5	56.6
연령 미상	50	80	0	-	-	-
15세 미만	416,041	382,184	338,542	8.1	-11.4	-18.6
15 - 64세	1,311,900	1,293,396	1,187,452	1.4	-8.2	-9.5
65세 이상	172,567	211,579	252,885	22.6	19.5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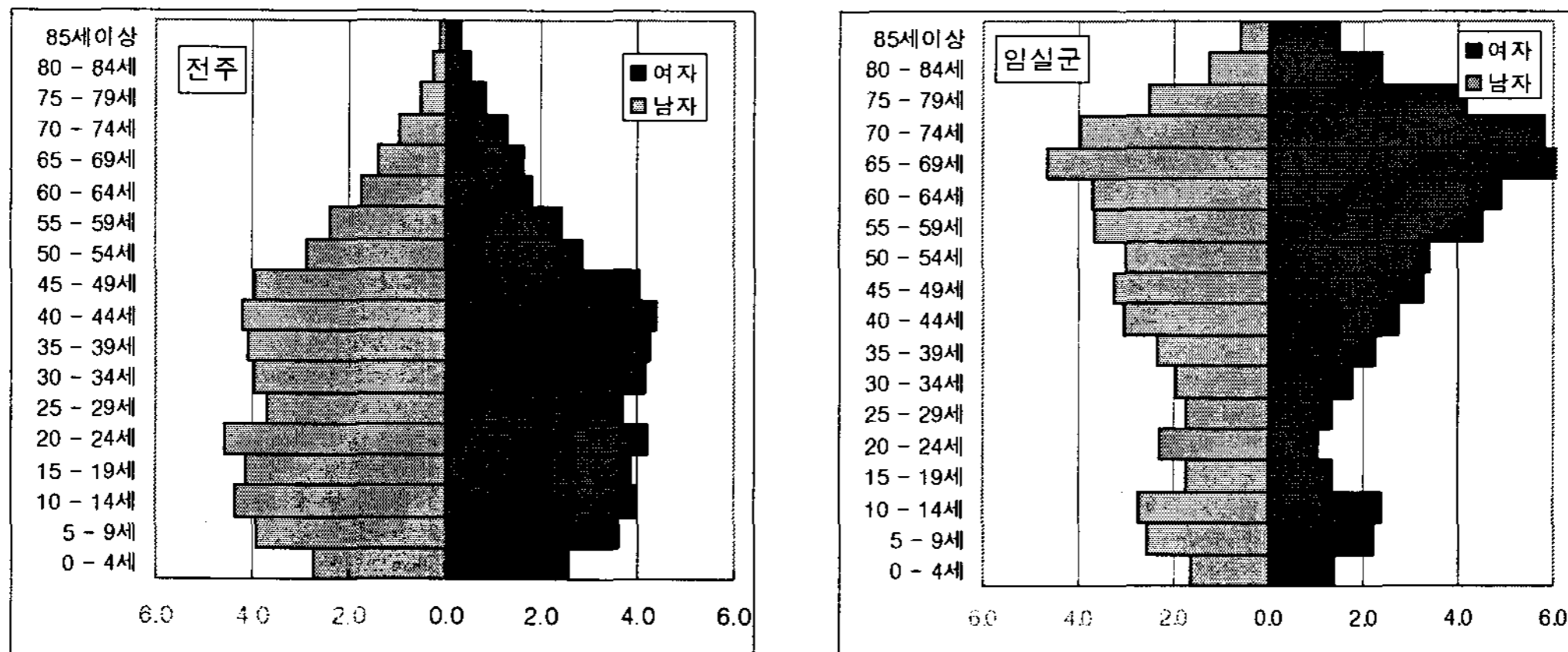
자 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 시/군 연령별 인구구조

2005년의 시/군의 연령별 구조는 각 시군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군지역의 인구피라미드는 방추형과 표주박형의 혼합형태로 방추형은 출산율감

소와 노령인구증가로 인한 것이고 표주박형은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에 기인한 현상이다. 전주시의 인구피라미드는 저출산에 기인한 방추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의 인구피라미드는 극단적인 노령인구증가와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을 나타내는 표주박형을 하고 있다.

<그림 3-2> 2005년 전라북도 시/군 인구피라미드



(3) 시/군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인구증가와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은 각 시군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의 시/군지역 연령별 인구구조 그림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시/군에서의 인구분포는 분포의 봉우리가 왼쪽에 있으며, 오른쪽 꼬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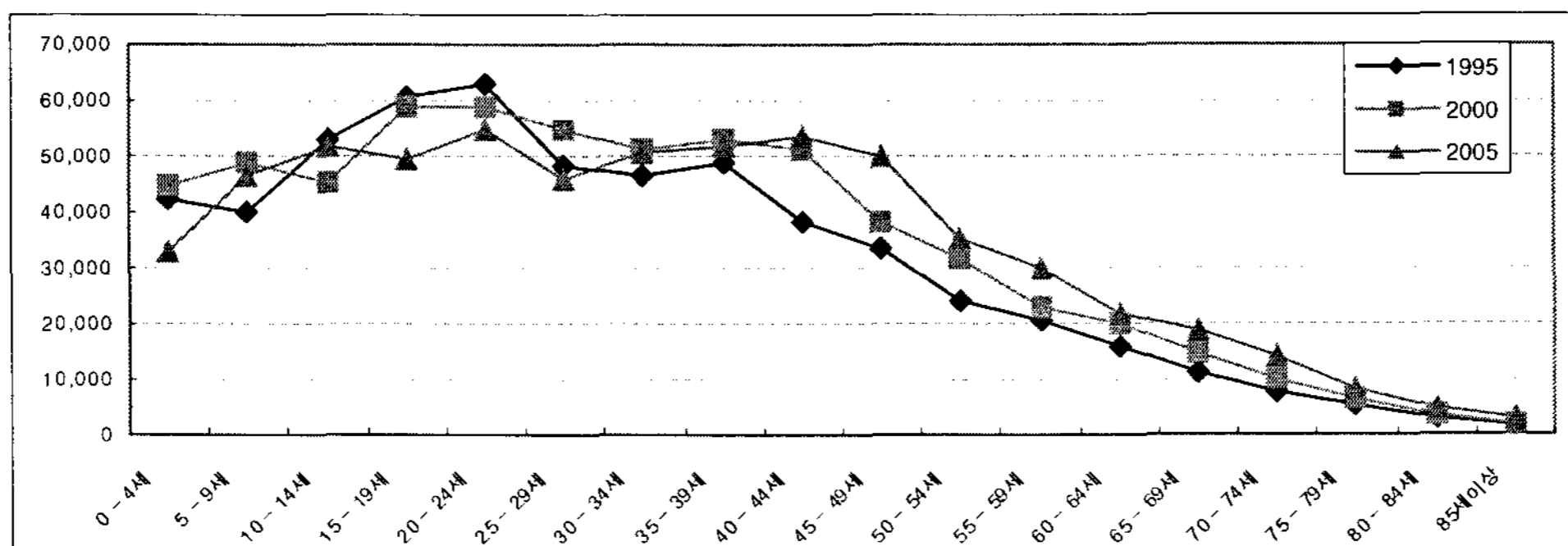
대부분의 시지역에서는 단조로운 모양의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노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특히 군에서는, 분포의 봉우리가 오른쪽에 있으며 왼쪽꼬리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최근 10년 동안 모든 시/군 지역에서 10-29세 사이의 인구가 감소하여 젊은 세대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며 10-29세 사이의 인구감소는 출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및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5-2005년 기간 동안 전주시(-22.6%)와 완주군(-1.1%)을 제외한 지역에서 0-4세 계급의 감소율은 3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실군의 경우 0-4세 계급의 인구감소율이 -60.2%로 최고치를 나타내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각 시군 중 몇몇 시군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인구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주시의 경우는 인구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시이며 전주시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연령계급은 0-4세 계급(-22.6%)이며,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계급은 70-74세계급(80.9%)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는 40-44세 이상의 계급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농복합형의 도시인 김제시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연령계급은 15-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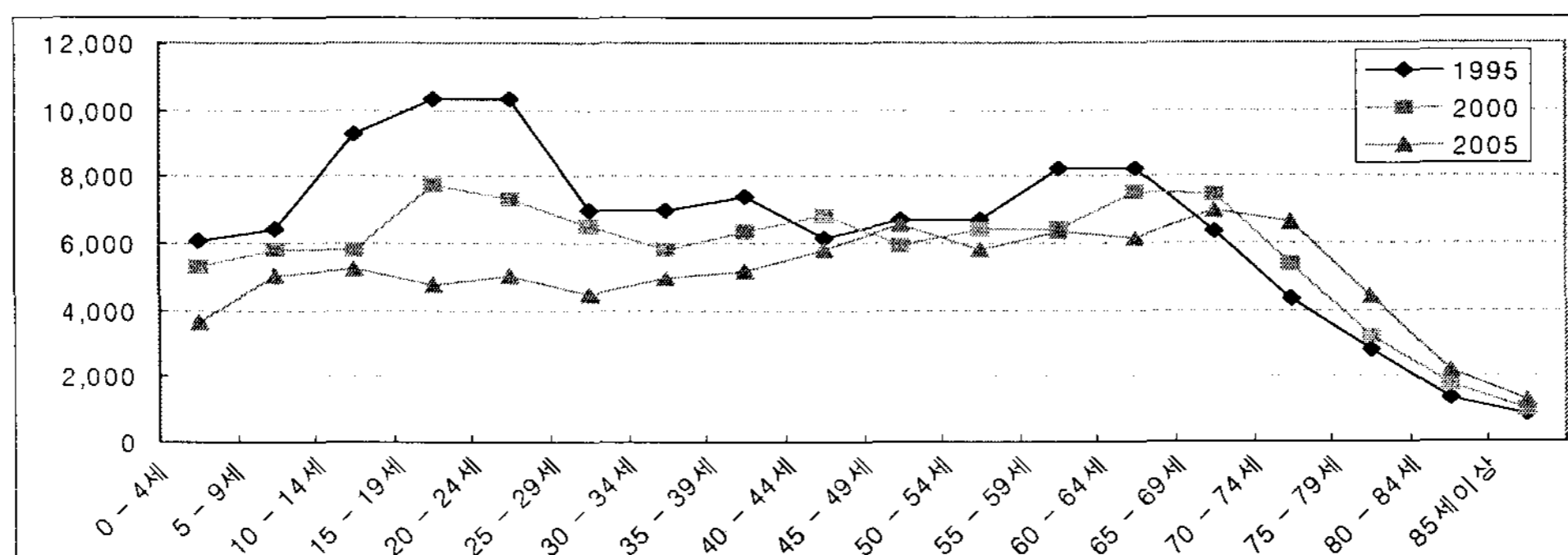
계급(-53.8%)이며,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계급은 80-84세계급(61.2%)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와 비교해 볼 때 김제시는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10-24세 구간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업으로 인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김제시의 경우 인구분포가 점차적으로 오른쪽 꼬리에서 양쪽 피크를 가지는 형태에서 왼쪽 피크가 사라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연령계급은 15-19세계급(-64.9%)이며,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계급은 80-84세계급(63.5%)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와 마찬가지로 10-24세 구간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폭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의 경우는 김제시의 경우보다 인구분포가 점차적으로 양쪽 피크를 가지는 형태에서 왼쪽 피크가 사라지고 왼쪽꼬리를 가지는 형태로 변환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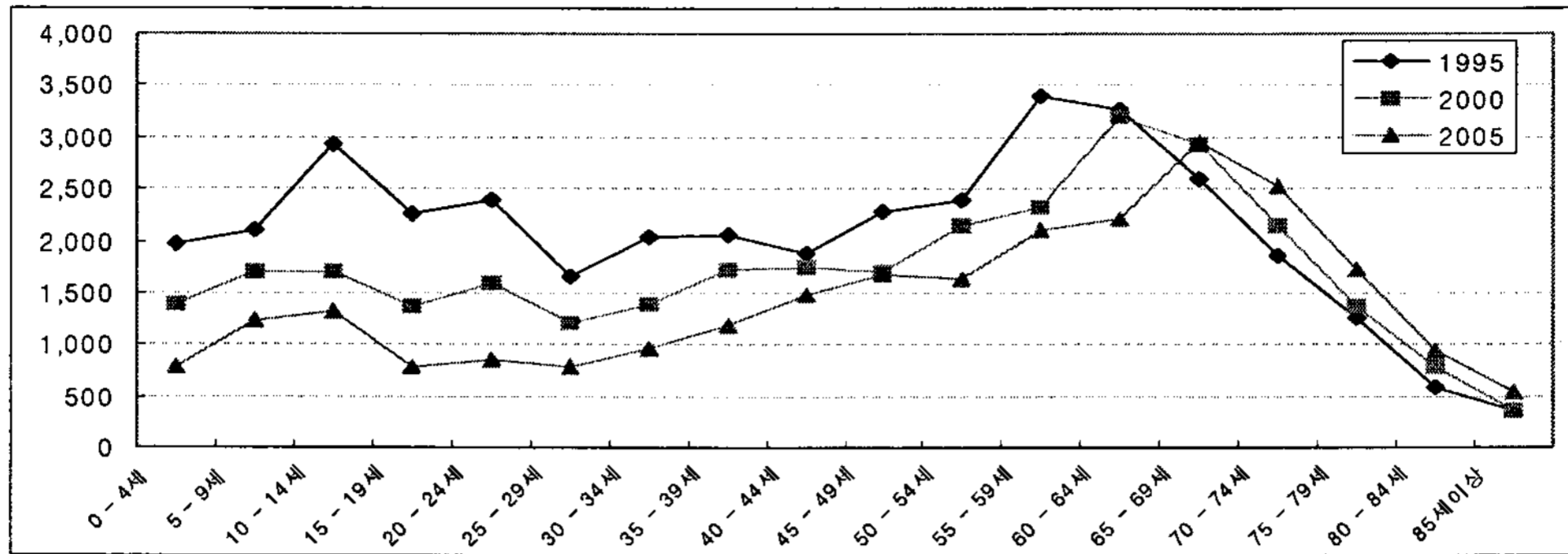
<그림 3-3> 전주시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그림 3-4> 김제시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그림 3-5> 임실군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3-3. 성별 인구구조

(1) 전라북도 성별 인구구조 현황

인구구조를 분석하는 하나의 분야는 성별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성별구조의 분석은 결혼기의 연령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데 지표가 된다. 전국의 성비는 2005년 기준으로 99.87로 나타나 남자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의 성비는 96.82로 전국에 비해서 3.0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2005년 전라북도 남성인구는 874,662명, 여성인구는 904,217명으로 여자가 29,555명 더 많고 2000년(98.26)과 비교할 시 여성인구비율이 약간 높아졌으며 이는 남자의 인구 감소율이 여자의 인구감소율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다(2005년 인구증가율: 남자(-6.49%), 여자(-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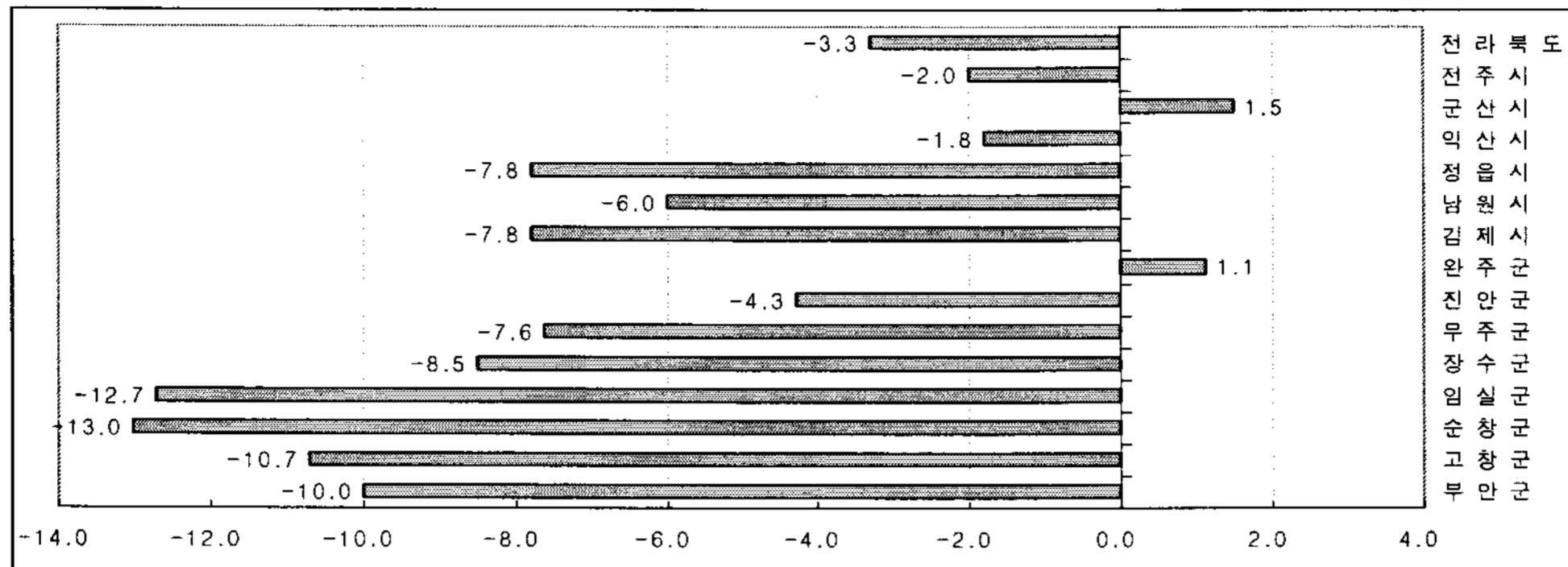
한편, 각 시/군별로 성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군산시와 완주군이 성비가 100이상이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100이하의 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군산시(101.5), 가장 낮은 곳은 순창군(87.0)이었다. 특히, 완주군과 진안군을 제외한 각 군에서는 성비가 90내외로 나타나 불균형 상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별 인구구조 변화

구분	년도	총인구		남자			여자			성비
		총인구수	증가율	남자인구수	비중	증가율	여자인구수	비중	증가율	
전국	1995	44,553,710	2.68	22,357,352	50.18	-	22,196,358	49.82	-	100.73
	2000	45,985,289	3.21	23,068,181	50.16	3.18	22,917,108	49.84	3.25	100.66
	2005	47,041,434	2.30	23,465,650	49.88	1.72	23,575,784	50.12	2.87	99.53
전라북도	1995	1,900,558	-8.16	941,913	49.56	-	958,645	50.44	-	98.25
	2000	1,887,239	-0.70	935,330	49.56	-0.70	951,909	50.44	-0.70	98.26
	2005	1,778,879	-5.74	874,662	49.17	-6.49	904,217	50.83	-5.01	96.73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3-6> 전라북도 시군별 성비불균형 현황



(2) 전라북도 연령별 성별 인구구조 현황

전라북도의 연령별 성별구조를 살펴보면, 0-44세 구간까지는 남성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30-34세구간 제외), 45세 이후의 연령구간부터 여성인구의 비중이 높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구간은 20-24세 구간으로 성비는 128이며, 남성에서 여성 인구수를 차감한 차이는 15,887명으로 남성인구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체 인구에서는 여성이 많으나, 결혼연령층에서는 남성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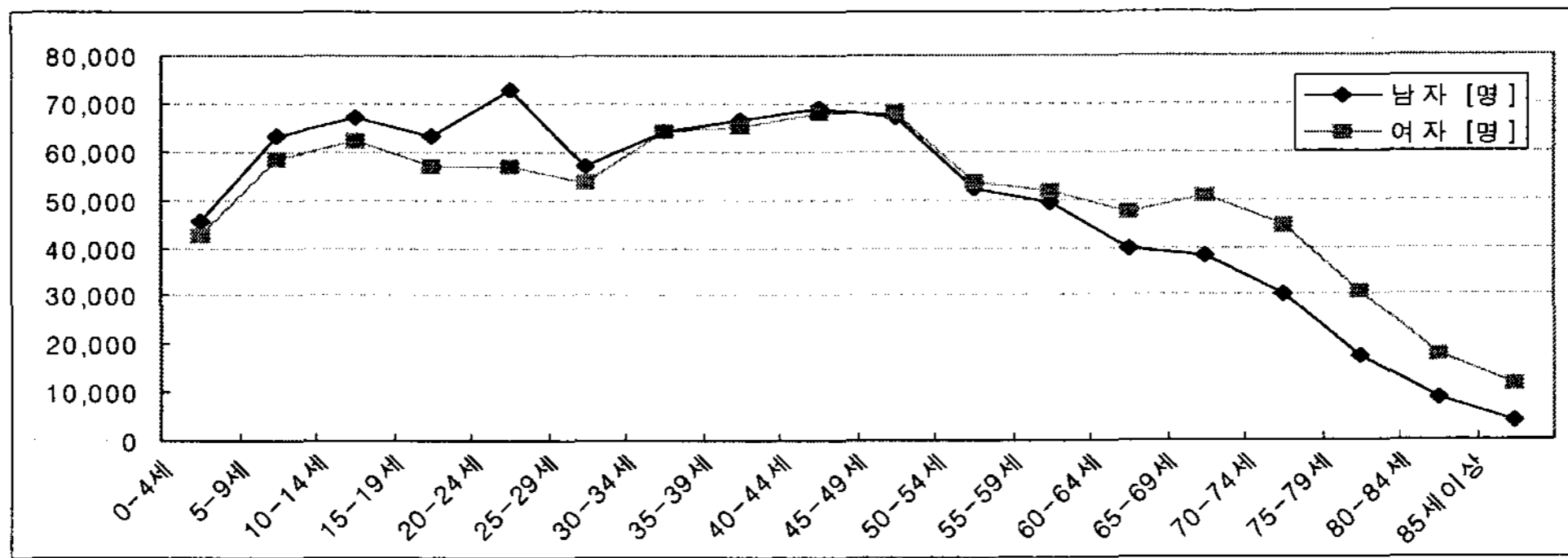
<표 2-4> 전라북도 연령별 성별구조(내국인)

	내국인	남자	여자	성비	남자-여자	남자-여자/계급인구
합계	1,778,879	874,662	904,217	96.7	-29,555	-1.7
0~ 4세	87,770	45,284	42,486	106.6	2,798	3.2
5~ 9세	121,655	63,083	58,572	107.7	4,511	3.7
10~ 14세	129,117	66,932	62,185	107.6	4,747	3.7
15~ 19세	120,556	63,371	57,185	110.8	6,186	5.1
20~ 24세	129,527	72,707	56,820	128.0	15,887	12.3
25~ 29세	110,990	57,148	53,842	106.1	3,306	3.0
30~ 34세	128,407	64,164	64,243	99.9	-79	-0.1
35~ 39세	131,767	66,528	65,239	102.0	1,289	1.0
40~ 44세	136,821	68,924	67,897	101.5	1,027	0.8
45~ 49세	135,364	67,105	68,259	98.3	-1,154	-0.9
50~ 54세	105,658	52,064	53,594	97.2	-1,530	-1.4
55~ 59세	101,226	49,350	51,876	95.1	-2,526	-2.5
60~ 64세	87,136	39,759	47,377	83.9	-7,618	-8.7
65~ 69세	88,978	38,423	50,555	76.0	-12,132	-13.6
70~ 74세	75,026	30,258	44,768	67.6	-14,510	-19.3
75~ 79세	47,903	17,412	30,491	57.1	-13,079	-27.3
80~ 84세	26,108	8,550	17,558	48.7	-9,008	-34.5
85세이상	14,870	3,600	11,270	31.9	-7,670	-51.6
15세미만	338,542	175,299	163,243	107.4	12,056	3.6
15~ 64세	1,187,452	601,120	586,332	102.5	14,788	1.2
65세이상	252,885	98,243	154,642	63.5	-56,399	-22.3
평균연령	38	36.2	39.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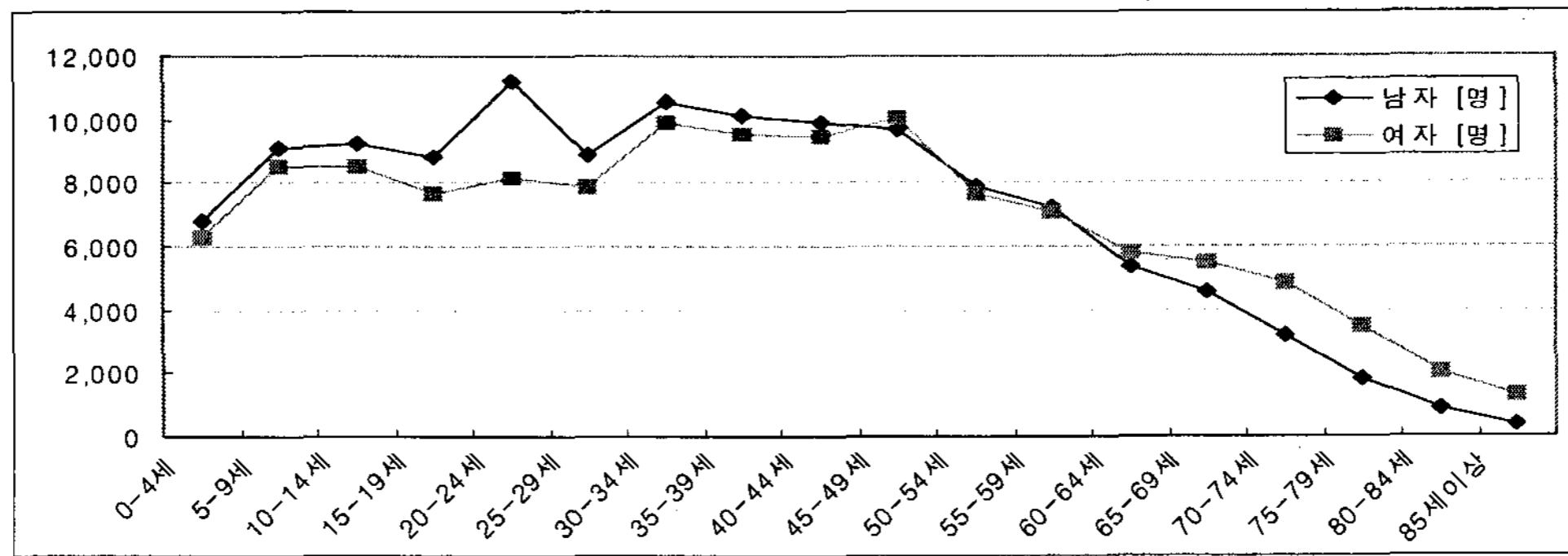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군산시의 성비는 101.5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1,846명 더 많다. 60세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45~49세 연령구간 제외), 60세이상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수군의 성비는 91.5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914명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노년층의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시부와 군부의 차이는 대부분 고령인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초현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군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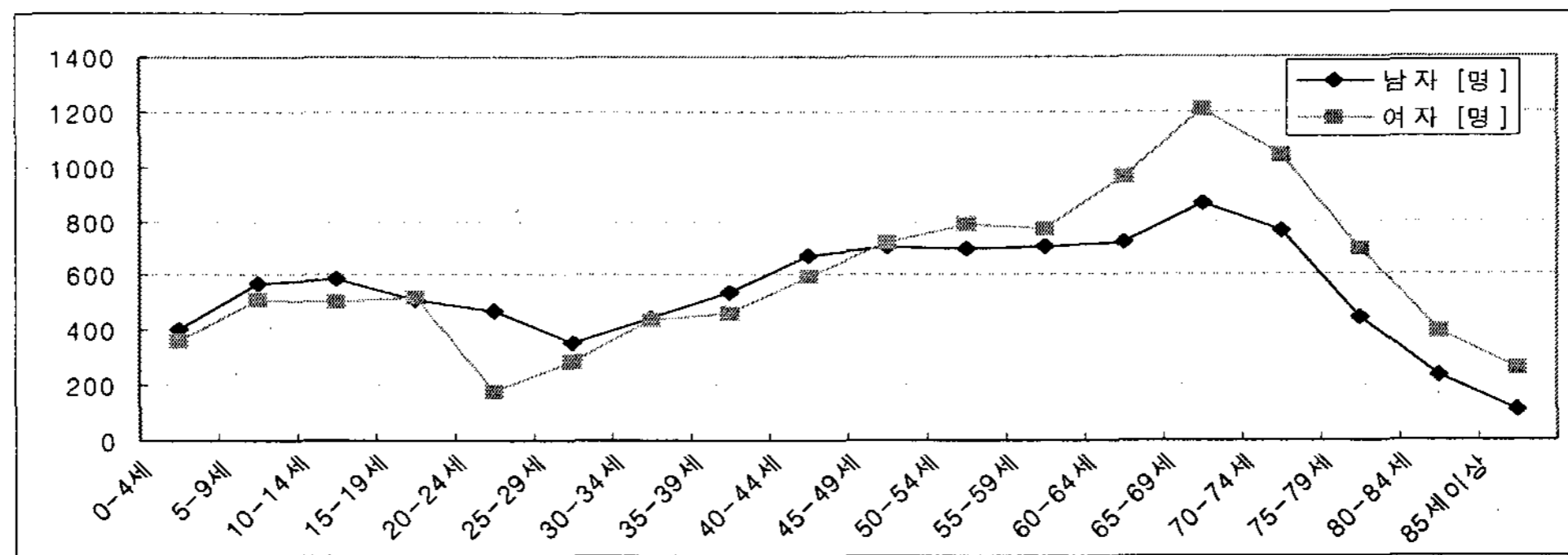
<그림 3-7> 전라북도 연령별 성별구조(내국인)



<그림 3-8> 군산시 연령별 성별구조



<그림 3-9> 장수군 연령별 성별구조



3-4 노령인구 구조

(1) 전라북도 노령인구 현황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령인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전라북도는 전국과 비교하여, 노령인구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전라북도 노령인구(65세이상인구)는 252,885명으로 노령인구비율은 14.2%, 노령화지수 74.7%, 노년부양비 28.5%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에 비해 노년부양비가 높은 것은 15-64세인구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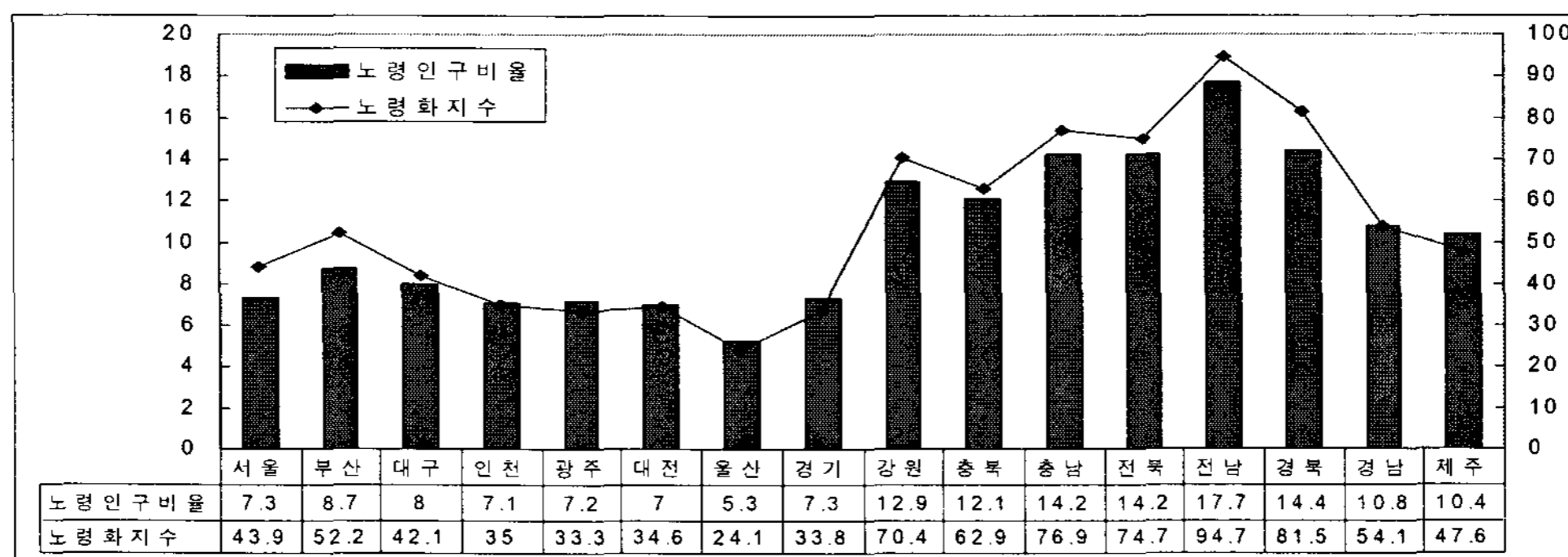
전라북도는 전라남도(17.7%), 경상북도(14.4%), 충청남도(14.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노령인구비율(14.2%)³⁾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령화지수 역시 전라남도(94.7%), 경상북도(81.5%), 충청남도 (76.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노령화지수(74.7%)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령인구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5〉 전국과 전라북도 노령인구

	전국	전라북도
인구	47,041,434	1,778,879
노령인구	4,365,218	252,885
노령인구비율	9.3	14.2
노령화지수	48.6	74.7
노년부양비	13.0	21.3
유년부양비	26.7	28.5

자 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0〉 시도별 노령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3) 충청남도의 노령인구비율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2) 전라북도 시군별 노령인구변화

2005년 전라북도 유소년 인구(0-14세)인구는 338,542명(19.0%),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 인구는 (15-64세)는 1,187,452명(66.8%), 65세이상의 노년인구는 252,885명(14.2%)으로 나타났다⁴⁾. 유소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2.9%p, 청장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2.2%p 감소한 반면 노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5.1%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다.

〈표 3-6〉 전라북도 유소년, 청장년, 노년인구 변화

	1995	2000	2005
총인구	1,900,558	1,887,239	1,778,879
15세 미만인구	416,041	382,184	338,542
15 - 64세 인구	1,311,900	1,293,396	1,187,452
65세 이상 인구	172,567	211,579	252,885
15세 미만 인구비율	21.9	20.3	19.0
15 - 64세 인구비율	69.0	68.5	66.8
65세 이상 인구비율	9.1	11.2	14.2

자 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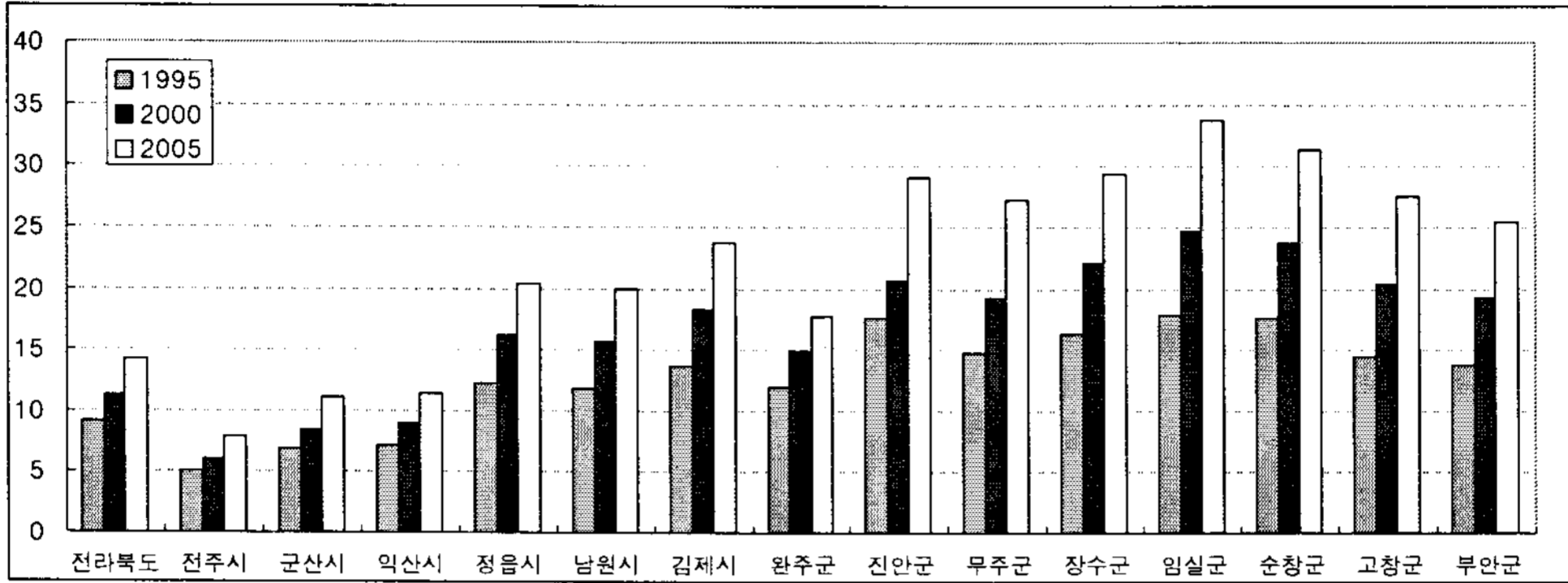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시/군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48,402명)이며, 익산시(34,833명), 군산시(27,849명), 정읍시(23,497명) 순으로 많은 노령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1995-2005년 기간 동안 노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전주시(73.3%), 군산시(50.5%), 익산시(49.5%) 순으로 나타나며, 전라북도 노령인구의 평균증가율은 46.5%로 나타났다. 2005년 노령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임실군(33.7%), 순창군(31.3%), 장수군(29.3%), 진안군(29.1%), 고창군(27.5%) 순으로 나타나며, 주로 군지역에서 노령인구비율이 높으며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에서는 25%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1995년에는 노령화지수 100을 넘는 지역이 없었으나, 2005년에 들어서는 전주시(36.9), 군산시(57.5), 익산시(56.5)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시/군에서 노령화지수 100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노령화지수가 200을 상회하는 지역이 임실군(261.2), 진안군(228.9), 순창군(221.5), 장수군(204.7)등 4개 군이나 된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유년부양비는 감소추세이며 노년부양비는 증가추세로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63.3을,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로 10.9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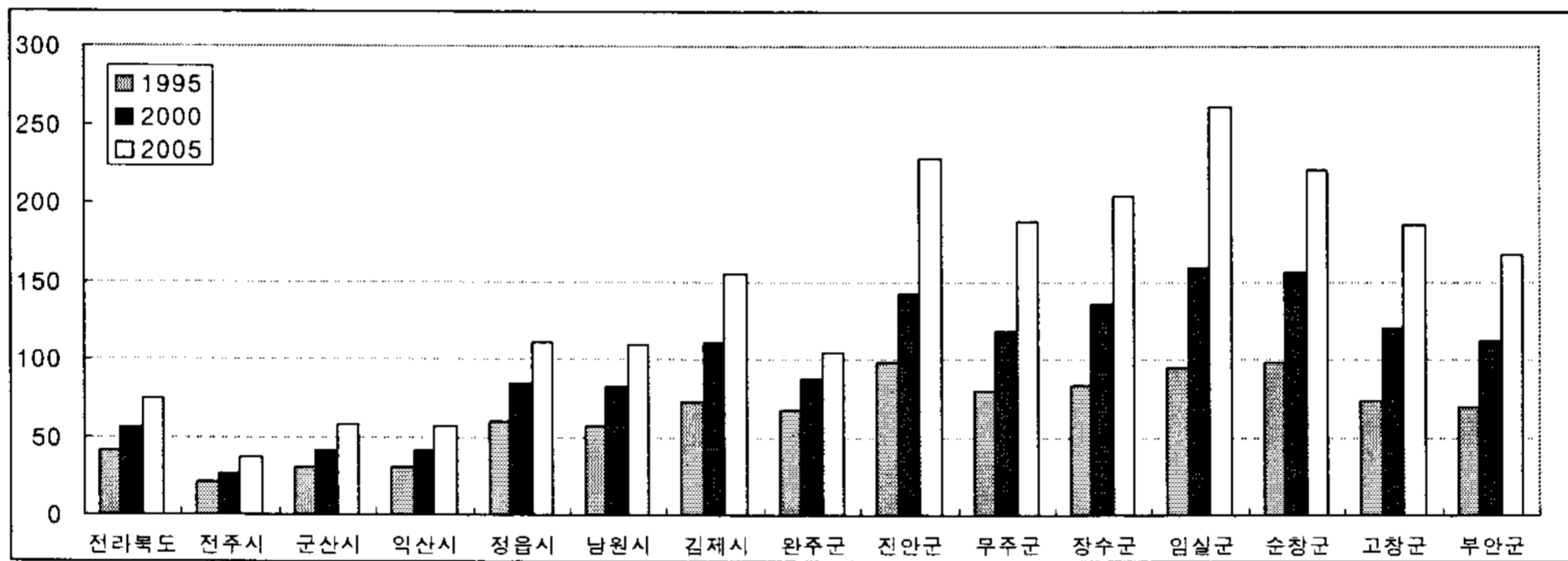
4) 2005년 전국: 유소년인구 비율(19.1%), 청장년인구 비율(71.6%), 노년인구비율(9.3%)

고 있다.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에서 높은 노년부양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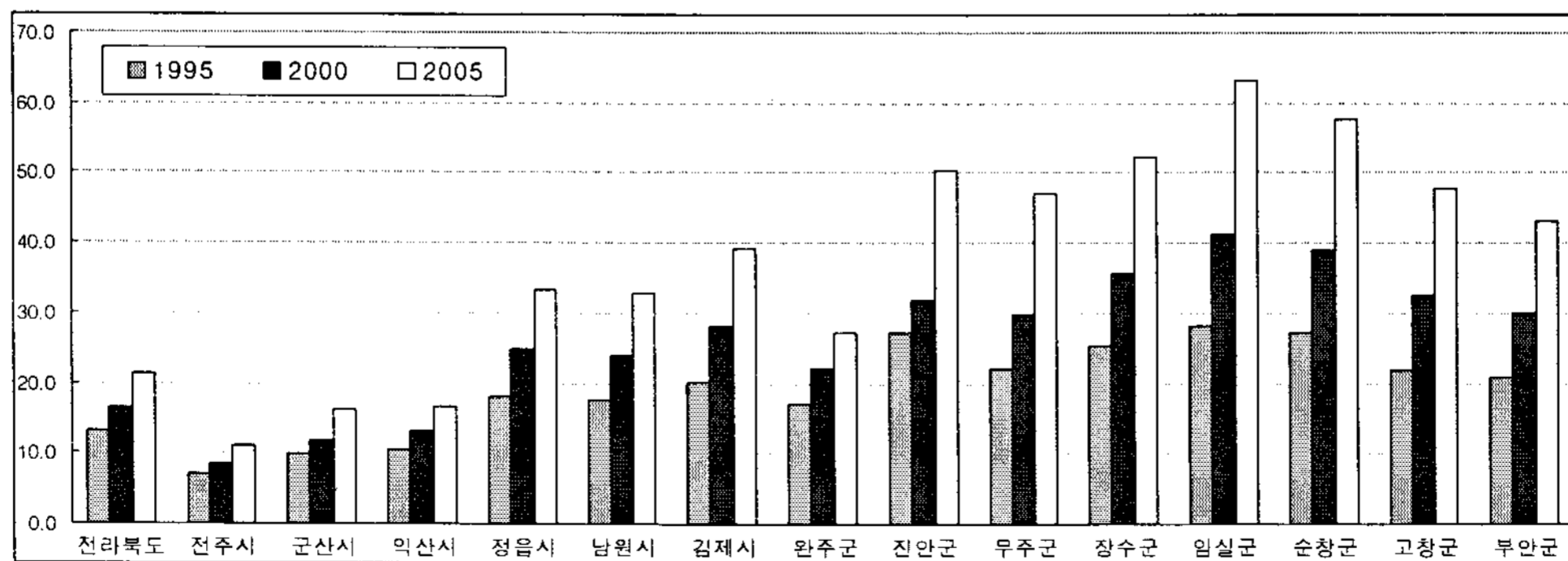
<그림 3-11> 전라북도 시군별 노령인구비율



<그림 3-12> 전라북도 시군별 노령화지수



<그림 3-13> 전라북도 시군별 노년부양비



3-5. 교육정도별 인구구조

(1) 전라북도 교육정도별 인구현황

2005년 현재 전라북도의 고졸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는 839,071명으로 6세이상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경우 고졸이상학력 인구 비율은 59.7%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고졸이상학력 인구비율은 전국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국보다 초졸이하학력과 안받았음(미취학)항목이 전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교육연한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7〉 전국 및 전라북도 교육정도

	전국		전라북도	
	6세이상내국인	비율	6세이상내국인	비율
6세이상내국인	44,041,973	100.0	1,667,628	100.0
초등학교졸업이하	7,936,683	18.0	375,604	22.5
중학교졸업이하	5,520,830	12.5	216,218	13.0
고등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14,195,267 (12,216,785)	32.2 (27.7)	473,478 (394,812)	28.4 (23.7)
2년제대졸업이하	4,307,616	9.8	129,655	7.8
4년제대졸업이하	8,623,172	19.6	281,719	16.9
석사졸업이하	917,875	2.1	26,221	1.6
박사졸업이하	215,321	0.5	6,664	0.4
안받았음(미취학포함)	2,325,209	5.3	158,069	9.5
고졸이상	26,280,769	59.7	839,071	50.3

자 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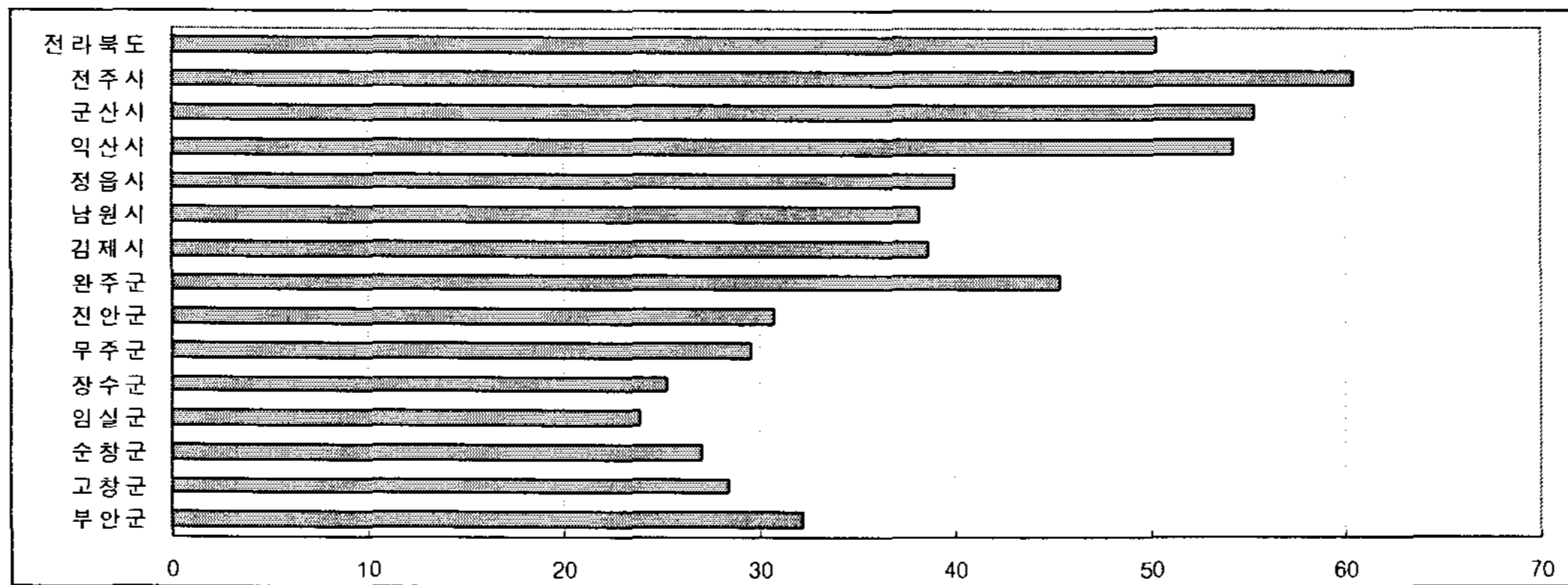
(2) 전라북도 시/군 교육정도별 인구 현황

전라북도 시/군에서 고졸이상학력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60.4%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졸이상학력 비율 50% 이상 지역은 전주시(60.4%), 군산시(55.3%), 익산시(54.3%) 등 3개 지역이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군에서는 그 비율이 30% 내외 밖에 미치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고졸이상 학력비율의 차이가 시/군간에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군지역에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유출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라북도는 미취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

년제대졸이하, 4년제대졸이하, 대학원졸업이하는 증가하고 있는 고학력사회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고학력화 과정에서 뒤쳐져 있다.

<그림 3-14> 전라북도 시군 교육정도(고졸이상학력비율)



<표 3-8> 전라북도 교육정도 변화

	1995	2000	2005
초졸이하	449,900	403,246	375,604
중졸이하	292,394	237,560	216,218
고졸이하	531,106	520,088	473,478
2년제대졸이하	48,924	128,417	129,655
4년제대졸이하	226,004	238,392	281,719
대학원졸업이하	14,782	24,998	32,885
안받았음(미취학포함)	187,720	183,514	158,069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각 시군별 교육정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주지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전라북도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는 초등학교졸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고졸의 비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전라북도내 시군부에서 이동해온 인구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9〉 전주시 교육정도 변화

	1995	2000	2005
초졸이하	99,405	102,169	102,456
중졸이하	83,706	71,749	70,069
고졸이하	175,430	182,581	172,845
2년제대졸이하	17,400	48,969	49,011
4년제대졸이하	101,878	113,490	142,098
대학원졸업이하	8,025	13,587	18,196
안받았음(미취학포함)	26,646	28,679	25,642

자 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3-6 인구이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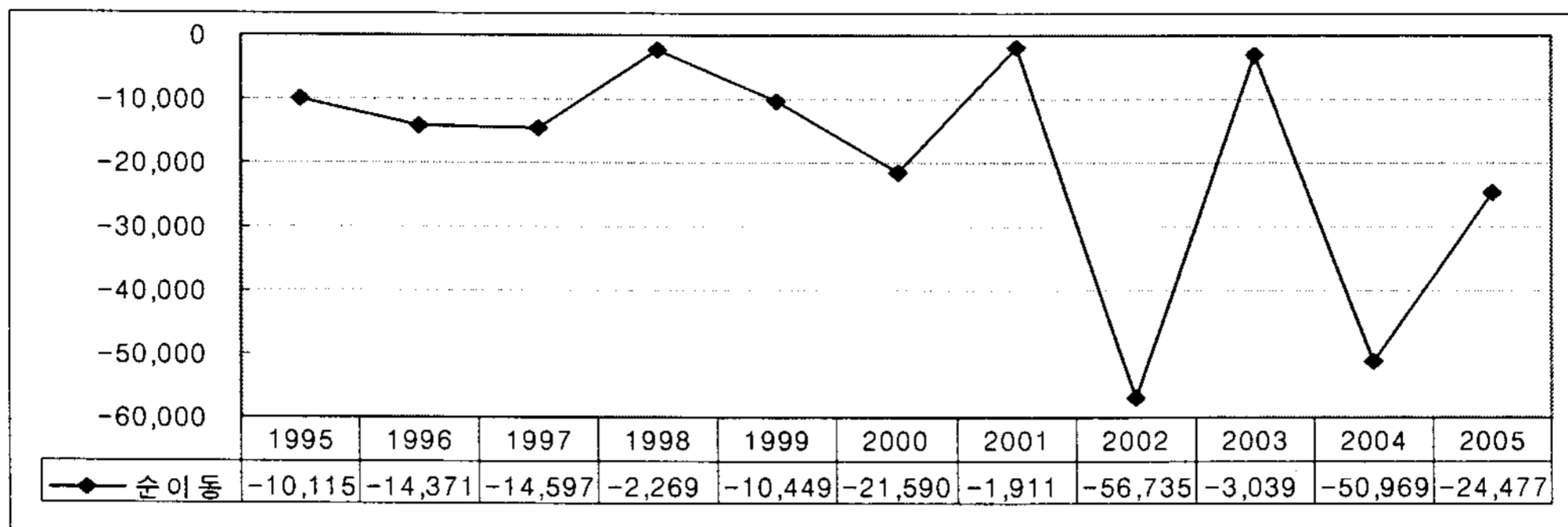
(1) 전라북도 인구이동추이

〈표 3-10〉 전라북도 인구이동추이

	총인구	총이동			시도내이동			시도간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시군구내	시군구간 전입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
1995	2,009,651 (100)	361,364 (18.0)	371,479 (18.5)	-10,115 (0.5)	205,161 (10.2)	74,373 (3.7)	74,373 (3.7)	81,830 (4.1)	91,945 (4.6)
1996	2,009,148 (100)	319,791 (15.9)	334,162 (16.6)	-14,371 (0.7)	172,012 (8.6)	68,706 (3.4)	68,706 (3.4)	79,073 (3.9)	93,444 (4.7)
1997	2,007,379 (100)	325,923 (16.2)	340,520 (17.0)	-14,597 (0.7)	176,891 (8.8)	70,846 (3.5)	70,846 (3.5)	78,186 (3.9)	92,783 (4.6)
1998	2,014,561 (100)	345,687 (17.2)	347,956 (17.3)	-2,269 (0.1)	182,332 (9.1)	79,558 (3.9)	79,558 (3.9)	83,797 (4.2)	86,066 (4.3)
1999	2,015,531 (100)	366,647 (18.2)	377,096 (18.7)	-10,449 (0.5)	186,551 (9.3)	89,485 (4.4)	89,485 (4.4)	90,611 (4.5)	101,060 (5.0)
2000	2,006,500 (100)	350,628 (17.5)	372,218 (18.6)	-21,590 (1.1)	179,686 (9.0)	88,368 (4.4)	88,368 (4.4)	82,574 (4.1)	104,164 (5.2)
2001	2,013,923 (100)	370,943 (18.4)	372,854 (18.5)	-1,911 (0.1)	147,496 (7.3)	118,069 (5.9)	118,069 (5.9)	105,378 (5.2)	107,289 (5.3)
2002	1,961,572 (100)	338,554 (17.3)	395,289 (20.2)	-56,735 (2.9)	181,954 (9.3)	84,493 (4.3)	84,493 (4.3)	72,107 (3.7)	128,842 (6.6)
2003	1,962,867 (100)	397,299 (20.2)	400,338 (20.4)	-3,039 (0.2)	182,019 (9.3)	105,390 (5.4)	105,390 (5.4)	109,890 (5.6)	112,929 (5.8)
2004	1,915,674 (100)	329,911 (17.2)	380,880 (19.9)	-50,969 (2.7)	163,209 (8.5)	89,409 (4.7)	8,409 (4.7)	77,293 (4.0)	128,262 (6.7)
2005	1,895,500 (100)	311,537 (16.4)	336,014 (17.7)	-24,477 (1.3)	158,000 (8.3)	79,072 (4.2)	79,072 (4.2)	74,465 (3.9)	98,942 (5.2)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자료, 괄호안은 총인구에 대한 비율

<그림 3-15> 순이동추이(주민등록인구자료)



전라북도의 최근 10년간 인구순유출은 -210,522명이며 1995-2005년 기간동안 해당년도 인구의 1% 정도가 평균적으로 유출된 것이며 1995-2005년 기간동안 인구의 순유입이 정(+)의 값을 가진 해는 없었다. 인구유출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2년으로 56,735명(2.9%)의 인구가 유출되었고 최근에 들어 인구이동의 변동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혼인상태

(1) 전라북도 혼인상태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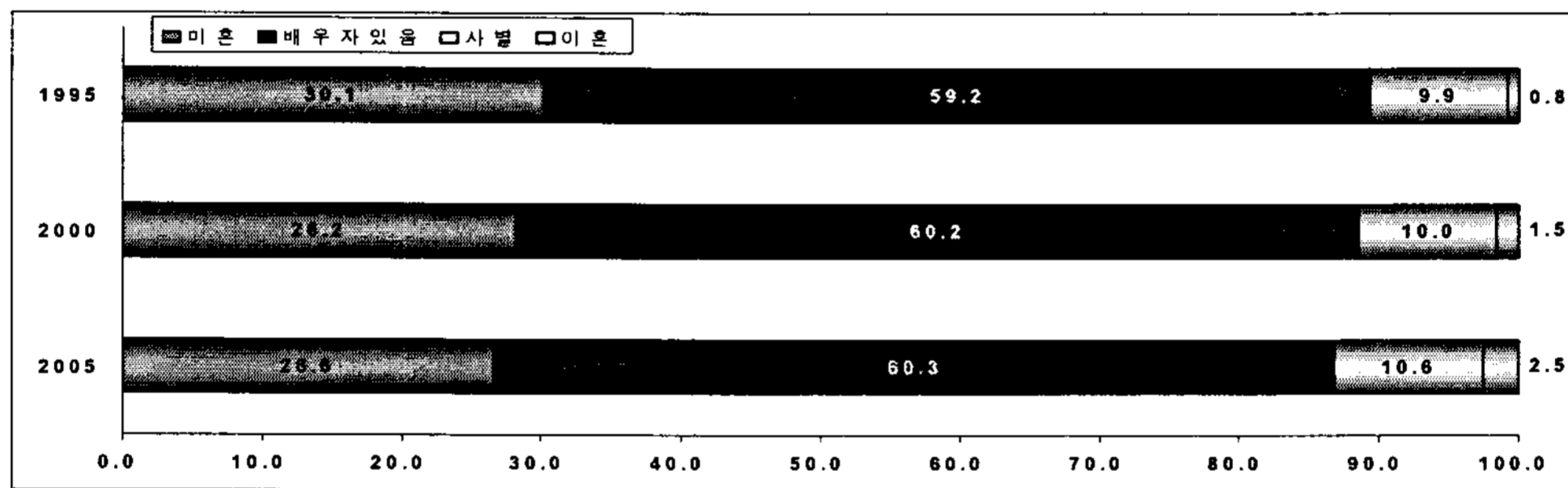
전라북도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인구 중 유배유자가 60.3%로 가장 많고, 미혼자 26.6%, 사별자 10.6%, 이혼자 2.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유배유자(59.3%), 미혼자(30.2%), 사별자(7.6%), 이혼자(3.0%)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과 전북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는 비율상은 차이가 있으나 서열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과 비교하여 미혼자비율이 1.6%p 감소, 이혼자비율이 1%p 증가하였고 시지역의 미혼자비율과 이혼자비율이 군지역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이며 미혼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32.0%), 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군(12.9%)이고 이혼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산시(3.2%)이고 이혼자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군(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미혼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늦은 결혼과 독신주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20대후반(25-29세)과 30대초반(30-34세)의 미혼자 비중이 10%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11〉 전라북도 시군 혼인상태별 인구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전라북도	26.6	60.3	10.6	2.5
전주시	32.0	58.6	6.8	2.6
군산시	27.6	59.9	9.2	3.2
익산시	29.3	58.8	9.1	2.6
정읍시	20.3	63.1	14.4	2.3
남원시	20.2	63.8	13.9	2.1
김제시	21.1	60.5	15.9	2.5
완주군	27.4	57.9	12.4	2.3
진안군	15.3	66.5	16.8	1.4
무주군	15.2	65.8	17.7	1.3
장수군	19.2	62.2	17.1	1.5
임실군	12.9	66.2	19.7	1.2
순창군	14.5	64.6	19.6	1.3
고창군	15.9	64.5	18.1	1.5
부안군	16.7	64.4	17.0	2.0

자 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6〉 전라북도 혼인상태별 인구비율변화(15세이상)



〈표 3-12〉 전라북도 연령별 미혼인구 비율의 변화

연령	1995	2000	2005
15 - 19	99.5	99.3	99.7
20 - 24	90.3	92.3	95.1
25 - 29	46.4	52.4	65.9
30 - 34	12.5	17.4	26.3
35 - 39	4.8	7.1	11.4
40 - 44	2.3	3.7	5.8
45 - 49	1.2	2.1	3.4
50 - 54	0.6	1.2	2.1
55 - 59	0.4	0.7	1.3
60 - 64	0.2	0.4	0.8
65 - 69	0.2	0.3	0.5
70 - 74	0.2	0.3	0.4
75 - 79	0.1	0.2	0.4
80 - 84	0.2	0.2	0.4
85세이상	0.0	0.2	0.5

자 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3-8.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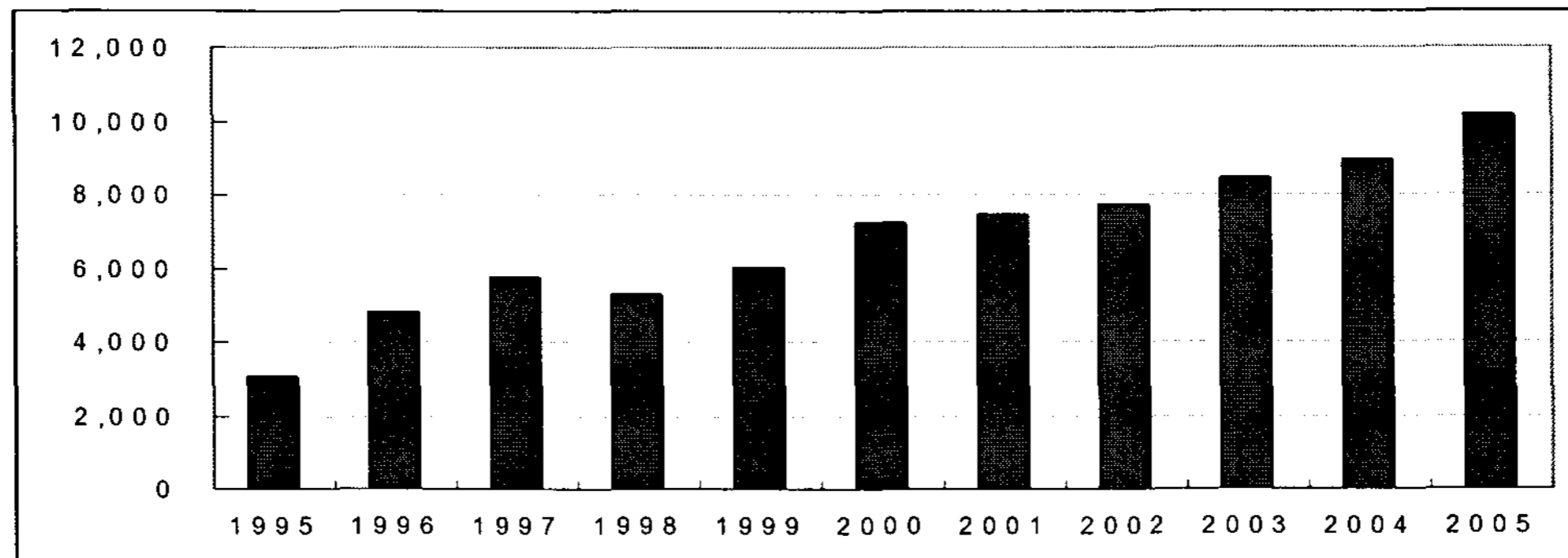
국내 외국인 총수는 237,517명으로 총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외국인은 5,134명으로 0.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남자가 2,916명, 외국인 여자가 2,218명으로 남자가 698명 더 많고 전라북도 시군에서 외국인 인구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전주시 1,206명(23.5%), 익산시 1,170명(22.8%), 군산시(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3>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비율

	총인구(내국인+외국인)	외국인	비율
전 국	47,278,951	237,517	0.5
전라북도	1,784,013	5,134	0.3

자 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7>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변화(주민등록인구자료)



3-9. 통근통학인구

(1) 전라북도 통근통학인구

2005년 전라북도 통근통학인구는 1,490,399명 (통근인구 653,919명, 통학인구 237,786명)으로 12세이상 인구의 43.9%가 통근인구이며, 16.0%가 통학인구이다. 2000년 기준보다 통근통학률은 3.7%p 감소(통근율 1.9%p 감소, 통학률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 통근통학률을 비교 했을때, 전국과 전라북도의 차이는 미세하나 통근인구비율은 전국보다 적으나 통학인구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시/군별 통근통학인구를 살펴보면 통학인구가 많은 순서는 전주시(302,073명), 익산시(151,200명), 군산시(116,458명), 정읍시(56,610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라북도 시/군별 통근통학인구비율로 살펴보면 순창군(72.4%), 진안군(72%), 무주

군(67.5%), 고창군(66.1%), 임실군(64.5%) 순으로 나타났다. 통근통학 흐름을 살펴보면, 통근통학자가 타 시도인 통근통학인구는 총 10,825명으로 전체 통근통학인구 (891,705명)의 1.2%를 차지하였다.

〈표 3-14〉 전라북도 통근통학인구

	2000		2005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12이상인구	37,403,571	1,544,929	39,464,893	1,490,399
통근통학인구	23,608,873	981,402	24,181,333	891,705
통근인구	17,195,857	708,222	17,933,422	653,919
통학인구	6,413,016	273,180	6,247,911	237,786

자 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표 3-15〉 전라북도 시군 통근통학인구 현황

	12세이상 인구	통근통학인구		통근인구		통학인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라북도	1,490,399	891,705	59.8	653,919	43.9	237,786	16.0
전주시	512,532	302,073	58.9	198,519	38.7	103,554	20.2
군산시	207,632	116,458	56.1	83,927	40.4	32,531	15.7
익산시	254,891	151,200	59.3	103,241	40.5	47,959	18.8
정읍시	96,964	56,610	58.4	46,097	47.5	10,513	10.8
남원시	72,146	45,148	62.6	36,890	51.1	8,258	11.4
김제시	78,110	47,488	60.8	39,308	50.3	8,180	10.5
완주군	67,142	39,764	59.2	29,669	44.2	10,095	15.0
진안군	21,186	15,250	72.0	13,699	64.7	1,551	7.3
무주군	19,520	13,172	67.5	11,700	59.9	1,472	7.5
장수군	17,844	11,454	64.2	10,130	56.8	1,324	7.4
임실군	22,813	14,713	64.5	13,109	57.5	1,604	7.0
순창군	22,990	16,634	72.4	14,764	64.2	1,870	8.1
고창군	48,757	32,250	66.1	28,045	57.5	4,205	8.6
부안군	47,872	29,491	61.6	24,821	51.8	4,670	9.8

자 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전라북도 상주/주간인구

전라북도는 주간에 상주인구보다 2,907명이 유입되나, 전체상주인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 주간인구 지수는 100으로 나타난다. 시군간 통근통학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을 보면 전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23,727명이 유입되며, 다른 시/군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56,886명으로 주간에 상주인구보다 33,159명이 유출되므로 주간인구지수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6〉 전라북도 상주/주간인구 변화

	1995	2000	2005
상주(야간)인구	1,553,294	1,851,715	1,752,698
유입인구-계	12,059	12,737	13,732
유입인구-통근	8,048	9,642	10,628
유입인구-통학	4,011	3,095	3,104
유출인구-계	7,520	9,073	10,825
유출인구-통근	5,044	6,874	9,088
유출인구-통학	2,476	2,199	1,737
주간인구	1,557,833	1,855,379	1,755,605
주간인구지수	100	100	100

자 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4.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장래인구추계

인구는 향후 지역의 주택, 토지이용, 교통, 공공시설 등의 각종 투자계획에 이용되므로 정확한 인구의 예측은 지역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인구예측의 방법으로는 요소적 추계방법(component method)과 비요소적 추계방법(non-component method)의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요소적 추계방법은 인구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이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인구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들 3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예측 합산하는 추계방법이며, 비요소적 추계방법은 요소들을 분리하지 않고 장래의 인구총계를 예측하는데 관심을 두는 추계방법이다.

4-1. 요소적 추계방법론

요소적방법(component method)은 인구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이라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인구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들 3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예측 합산하는 방법이다.

$$\text{인구변화} = \text{자연적변화(출생+사망)} + \text{사회적변화(전입+전출)}$$

$$P_{t+1} = P_t + B_t - D_t + IM_t - OM_t$$

$$\Delta P_t = P_{t+1} - P_t = B_t - D_t + IM_t - OM_t$$

요소모형은 출생은 젊은 여성인구에 의해 결정되고, 사망은 노인인구, 인구이동은 청년인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구의 요소별 분석은 총체적인 인구예측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전제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요소모형은 어떤 도시의 두

시점간의 인구의 변화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와 전출입에 의한 순이동에 근거를 둔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센서스 정보만으로 인구의 변화인 출생, 사망, 이동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소적방법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1)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

코호트 요인법이란 기준인구에 성/연령별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이동 등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것이다. 추계대상은 인구특성별로 성별/연령별 인구이며, 관련지표는 인구증가(율), 출생(율), 사망(율), 평균수명 등이며, 출산율 수준에 대한 가정에 따라 중위, 고위 및 저위로 구분한다.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향후 인구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학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 통계청에서 적용하는 방법(코호트 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이며, 특정연도 이후의 출생·사망·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별 실적치를 감안하여 현행 추계인구자료를 보정하고 있다.

(2) H-P(Hamilton-Perry) 기법

H-P(Hamilton & Perry 1966)기법⁵⁾은 코호트 요인법의 한 방법으로, 특정 지역에서 연령집단의 인구변화율을 두 시점의 인구를 통해서 직접 구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변화율은 사망과 인구이동의 결과를 포괄하는 값으로 사망 혹은 인구이동에 관한 부가적 자료없이 구해지게 되며, 연령별 변화율이 기준시점에서 다음 기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를 추계한다. 이 연령별 변화율을 코호트별 인구변화 비율(cohort change ratios, CCR)이라고 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_nCCR_x = {}_n P_{x+y,l} / {}_n P_{x,b}$$

여기서 ${}_n P_{x+y,l}$ 은 가장 최근의 센서스(l)에 집계된 $x+y$ 부터 $x+y+n$ 연령대의 인구수이고, ${}_n P_{x,b}$ 는 두 번째로 가까운 센서스(b)로부터 집계된 x 에서 $x+n$ 연령대의 인구수, 그리고 y 는 두 센서스 간의 연도 차이이다.

코호트별 인구변화 비율을 통해서 다음기의 연령별 인구추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_n P_{x+z,t} = {}_n CCR_x \times {}_n P_{x,l}$$

5) 이상림, 조영태, "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지, 28(1), pp.149-172, 2005년.

위의 식을 사용하면, 최소 연령코호트인 5세이하 집단과 85세 이상 등의 최고연령 코호트를 제외한 연령대는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5세 이하 연령 코호트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최근 센서스의 모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최고연령층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 센서스의 최고연령 집단인 85세 이상과 최근 직전 센서스의 80세 이상 코호트간의 변화비를 사용한다⁶⁾.

H-P방법을 사용할 경우 센서의 자료만 가지고도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성과 연령별 코호트 추계를 상당히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연령별 출산율이나 사망률과 같이 별도의 동태 자료를 얻기 힘든 소지역의 인구추계도 가능하다는 점은 H-P법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이다. 한편 H-P법의 한계점은, 다른 추계 방법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 발생 시 추계오차가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2회차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스 범위오차가 차수에 따라 다를 경우 추계치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2. 장래인구추계⁷⁾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장래인구를 추정하기 위해서 코호트 요인법의 한 종류인 H-P(Hamilton & Perry 1966)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연령집단의 인구변화율을 두 시점의 인구를 통해서 직접 구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으로서 H-P법을 이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할 때, 센서스 자료와 연령별 출산율 자료만을 가지고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성과 연령별 코호트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추계를 위해 2000-2005년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였고 인구주택센서스의 자료만을 가지고 추계가 가능하므로, 출생·사망·인구이동 등의 자료 구득이 어려운 소지역에서의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H-P법의 한계점은, 다른 추계 방법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 발생 시 추계오차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2005년 현재 전라북도의 총인구는 1,778,879명으로 이는 1995년에 비해 121,679명이 감소하였으며 10년간 감소율은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05년의 인구변화를 기준으로 HP추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령별 출산율은 2003년 전라북도 자료를 이용⁸⁾하였고 2010년 전라북도 인구는 (-)6.1%의 인구성장률을 나타내어 1,670,46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

6) 이지연, "센서스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기대인구 추정기법", 통계청, 통계연구, 제10권 제2호. pp.1-29, 2005년.

7) 본 연구의 추계결과는 2000년과 2005년의 연령별 인구비율과 적용한 출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분석한 결과이므로, 향후 정책의 변화나 출산율, 인구이동성향이 변화할 때 장래인구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8) 2000년과 2005년의 평균년도의 출산율

계하였고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30년에는 현재인구의 67.7%의 수준인 1,203,875명으로 전망되었다.

〈표 3-17〉 전라북도 장래인구추계(HP 추계기법)

	인구변화							인구비중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2010	2015	2020	2030
전라북도	1,900,558	1,887,239	1,778,879	1,670,468	1,556,372	1,433,822	1,203,875	93.9	87.5	80.6	67.7
전주시	562,832	615,804	622,092	624,189	619,289	605,489	567,729	100.3	99.5	97.3	91.3
군산시	266,340	272,129	249,212	226,854	204,684	182,075	140,510	91.0	82.1	73.1	56.4
익산시	322,134	322,636	306,974	289,577	270,511	249,441	208,153	94.3	88.1	81.3	67.8
정읍시	138,984	128,892	115,416	102,519	89,398	76,548	55,187	88.8	77.5	66.3	47.8
남원시	103,527	94,810	85,828	77,048	68,206	59,262	43,638	89.8	79.5	69.0	50.8
김제시	115,407	102,428	90,376	79,195	68,445	58,105	40,406	87.6	75.7	64.3	44.7
완주군	81,280	78,964	79,104	77,933	76,281	73,881	67,721	98.5	96.4	93.4	85.6
진안군	32,070	30,223	23,915	18,958	14,910	11,525	6,460	79.3	62.3	48.2	27.0
무주군	29,426	27,430	22,310	18,132	14,525	11,425	6,722	81.3	65.1	51.2	30.1
장수군	26,881	23,266	20,486	17,824	15,188	12,658	8,427	87.0	74.1	61.8	41.1
임실군	37,188	30,743	25,682	21,234	17,274	13,758	8,232	82.7	67.3	53.6	32.1
순창군	35,316	30,447	26,250	22,254	18,485	14,987	9,369	84.8	70.4	57.1	35.7
고창군	76,751	64,846	55,994	47,948	40,231	32,920	21,136	85.6	71.8	58.8	37.7
부안군	72,422	64,621	55,240	46,804	38,943	31,748	20,185	84.7	70.5	57.5	36.5

주: 1) 1995~2005년 인구는 총조사인구, 2010~2030년 인구는 추계인구
 2) 인구비중은 2005년 기준

4-3. 인구구조

(1) 연령별 인구구조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2020년에는 12.2%, 2030년 11.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중 66.8%에서 2020년에는 66.5%, 2030년에는 60.1%로 낮아질 전망이다. 65세이상 고령인구는 평균연령 연장 및 출생아 감소로 2005년 현재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21.3%로 초고령사회⁹⁾에 도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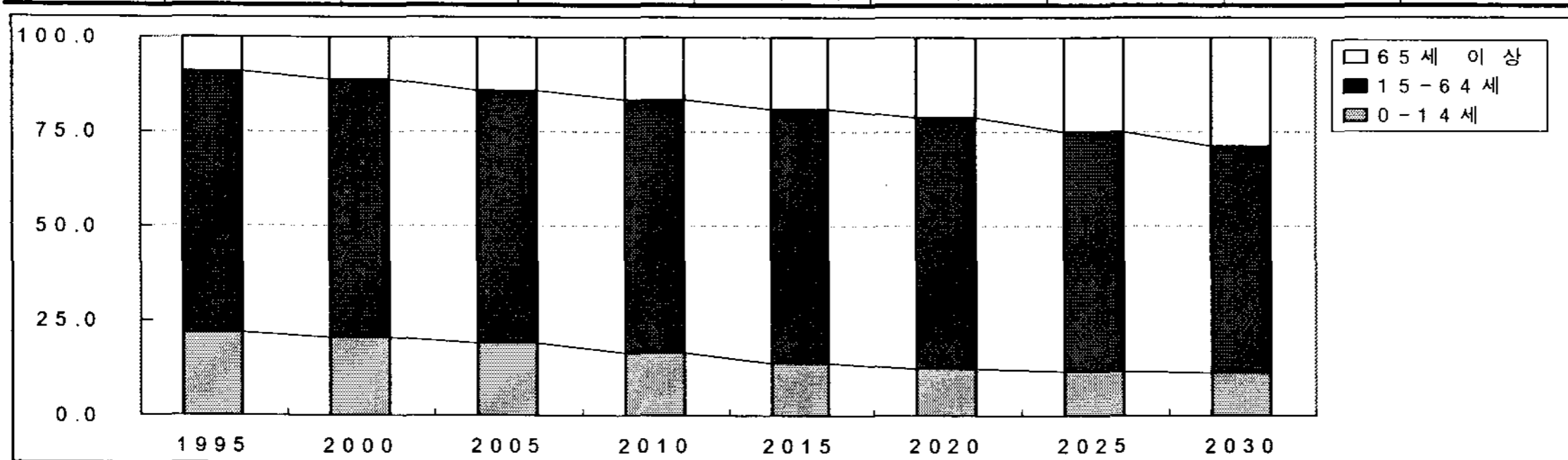
2005년 현재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52,885명으로 1995년의 172,567명보다 80,318명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현재보다 41,226명이 증가한 294,111명, 2030년에는 346,881명으로 현재보

9) 고령화는 노인인구 구성비에 따른 UN의 국가 분류에 의해 정의된다. UN은 인구구성에 따라 노인인구의 구성이 4%미만인 경우에는 유년인구국, 4-7% 성년인구국, 7%이상인 경우에는 노년인구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년인구국을 세분류하여 7-14%미만 노령화사회, 14-20%미만 노령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다 1.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표 4-1>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총인구	1,900,558	1,887,239	1,778,879	1,670,468	1,556,372	1,433,822	1,314,501	1,203,875
0-14세	416,041 (21.9)	382,184 (20.3)	338,542 (19.0)	274,650 (16.4)	211,679 (13.6)	175,409 (12.2)	150,644 (11.5)	133,822 (11.1)
15-64세	1,311,900 (69.0)	1,293,396 (68.5)	1,187,452 (66.8)	1,121,090 (67.1)	1,050,582 (67.5)	953,229 (66.5)	833,771 (63.4)	723,172 (60.1)
65세이상	172,567 (9.1)	211,579 (11.2)	252,885 (14.2)	274,728 (16.4)	294,111 (18.9)	305,184 (21.3)	330,086 (25.1)	346,881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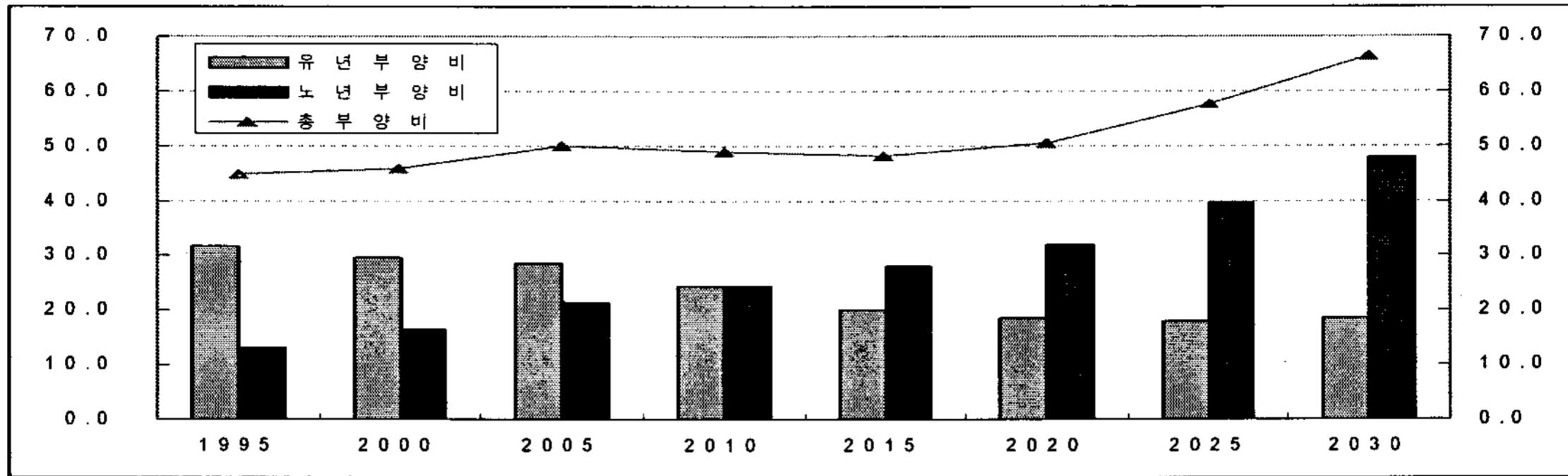
(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인 총부양비는 2005년 49.8%에서 2015년 48.1%로 낮아진 후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30년에는 66.5% 전망된다. 유소년부양비는 2005년 현재 28.5%에서 출산감소와 가임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2030년에는 18.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05년 노령화지수는 74.7%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74명 정도이나 2010년 100명, 2030년에는 259명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령화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표 4-2> 전라북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총부양비	44.9	45.9	49.8	49.0	48.1	50.4	57.7	66.5
유년부양비	31.7	29.5	28.5	24.5	20.1	18.4	18.1	18.5
노년부양비	13.2	16.4	21.3	24.5	28.0	32.0	39.6	48.0
노령화지수	41.5	55.4	74.7	100.0	138.9	174.0	219.1	259.2

<그림 4-1> 전라북도 총부양비 추이



(3) 인구 고령화 속도

고령인구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5년정도이며, 14%에서 20%(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걸리는 기간은 12년 정도로 예측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1990년(7.2%) 이후 27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국보다 노령인구 증가소요연수는 느리지만, 도달연도는 6년 정도 빠르게 진입

<표 4-3> 인구고령화 속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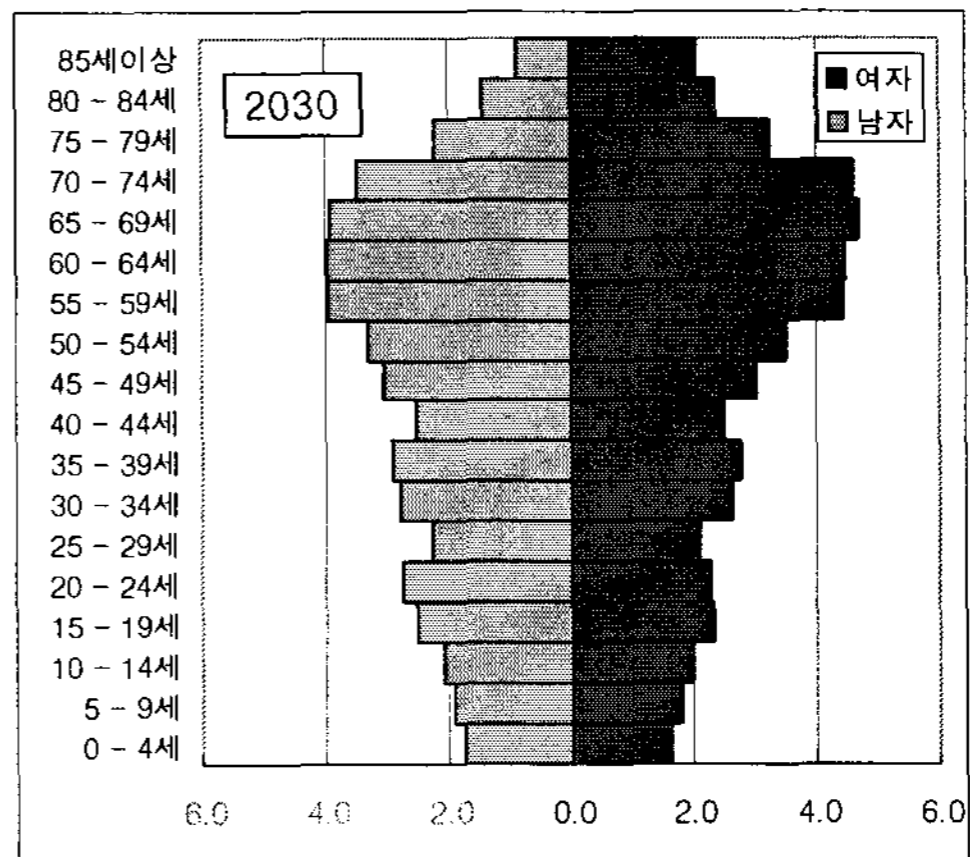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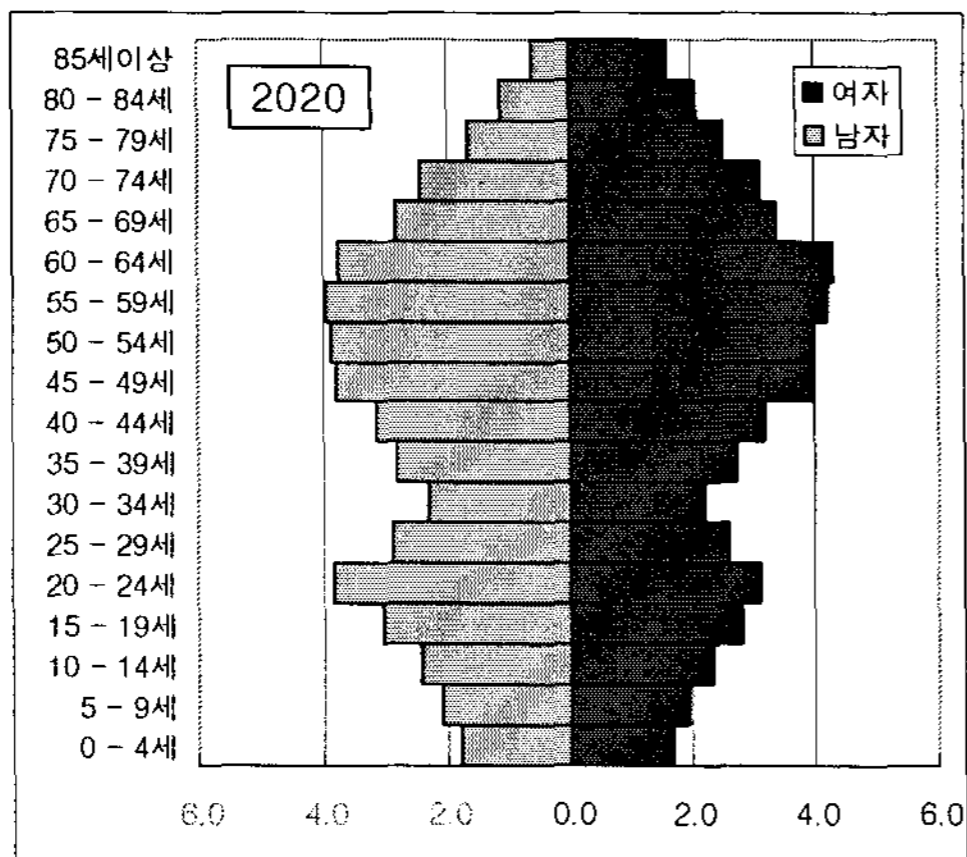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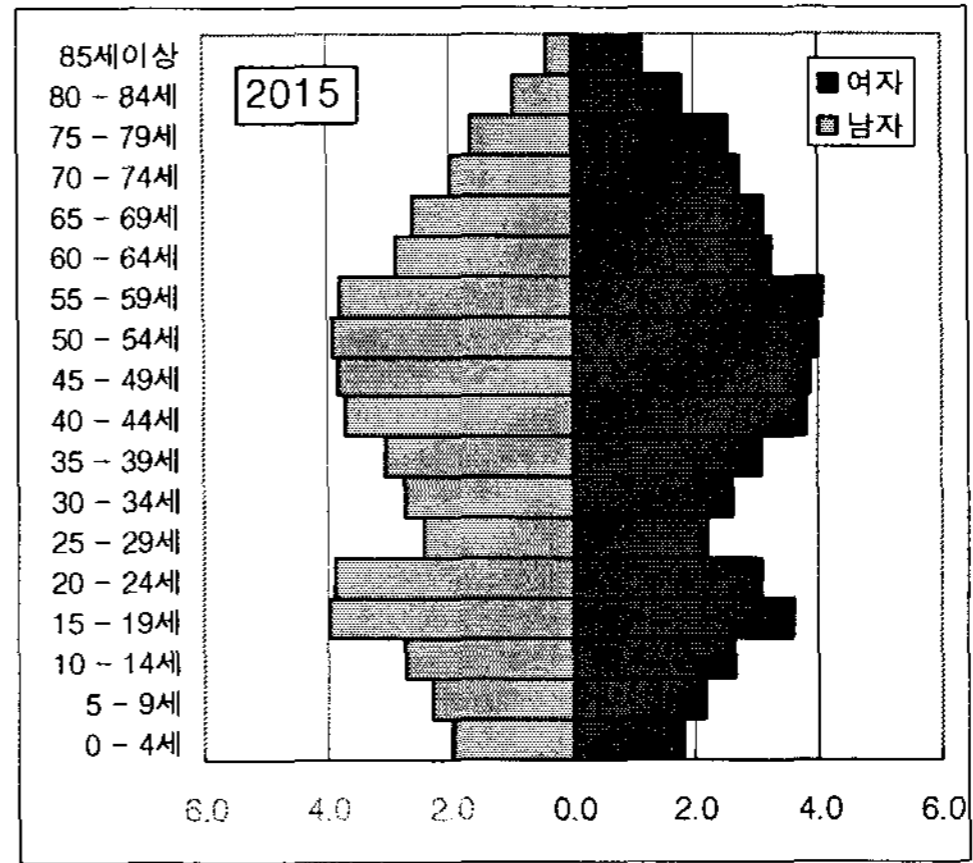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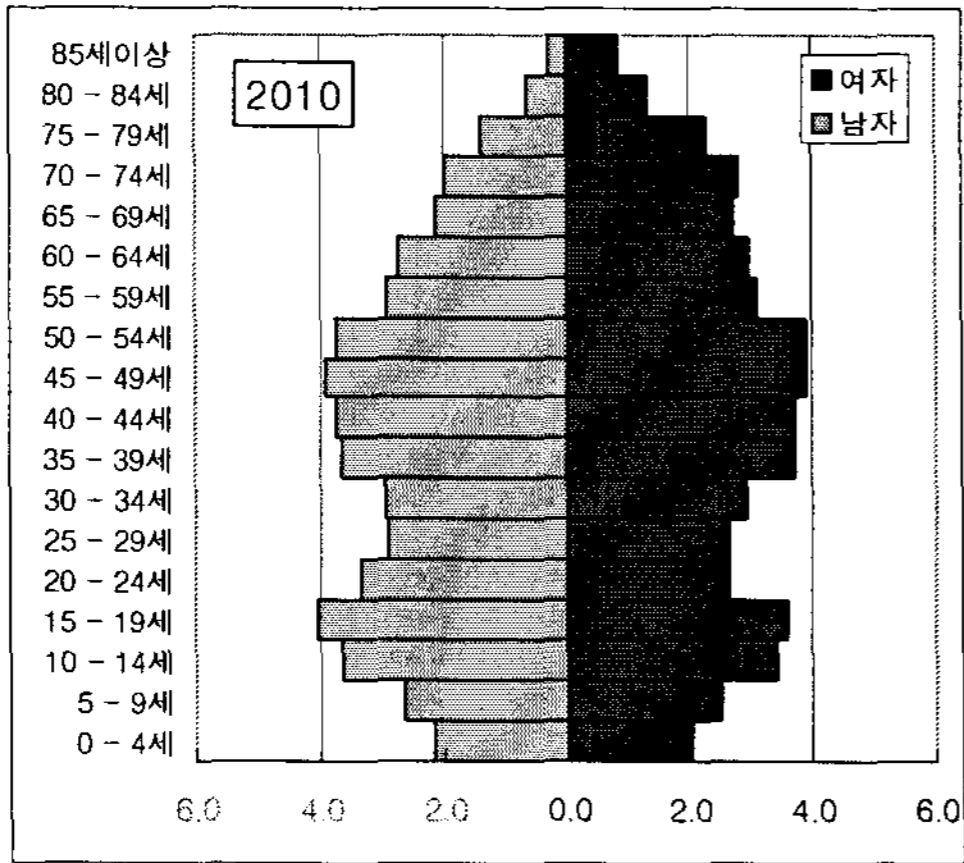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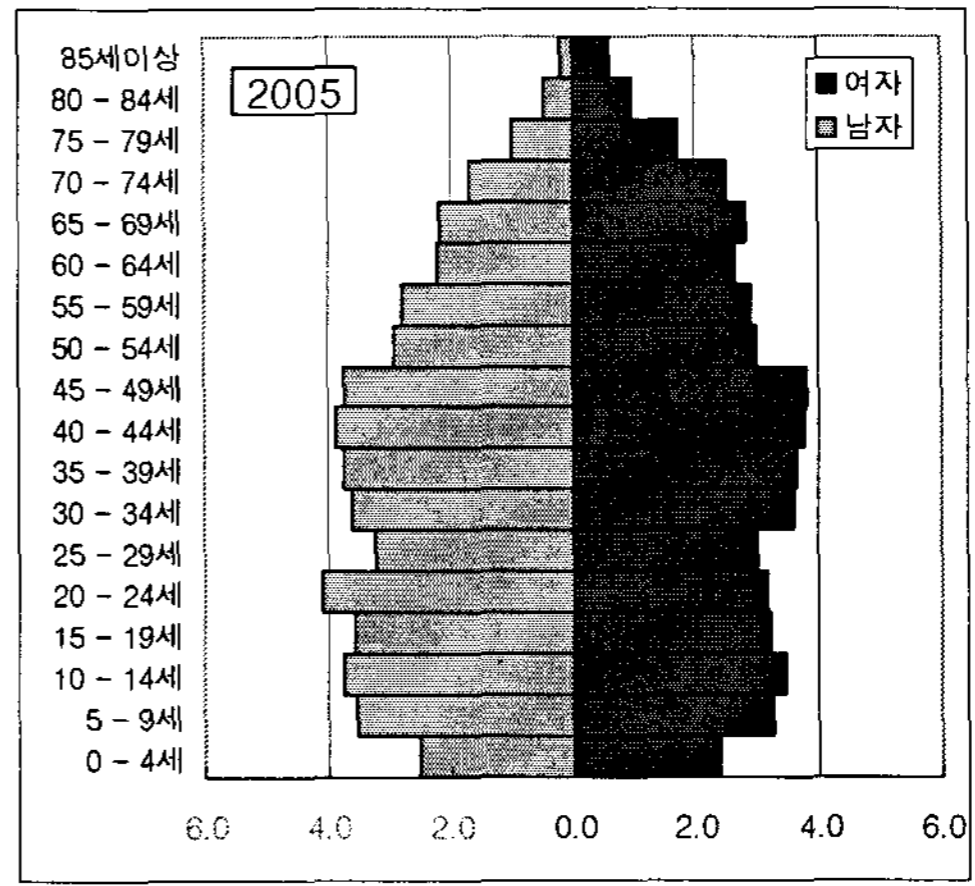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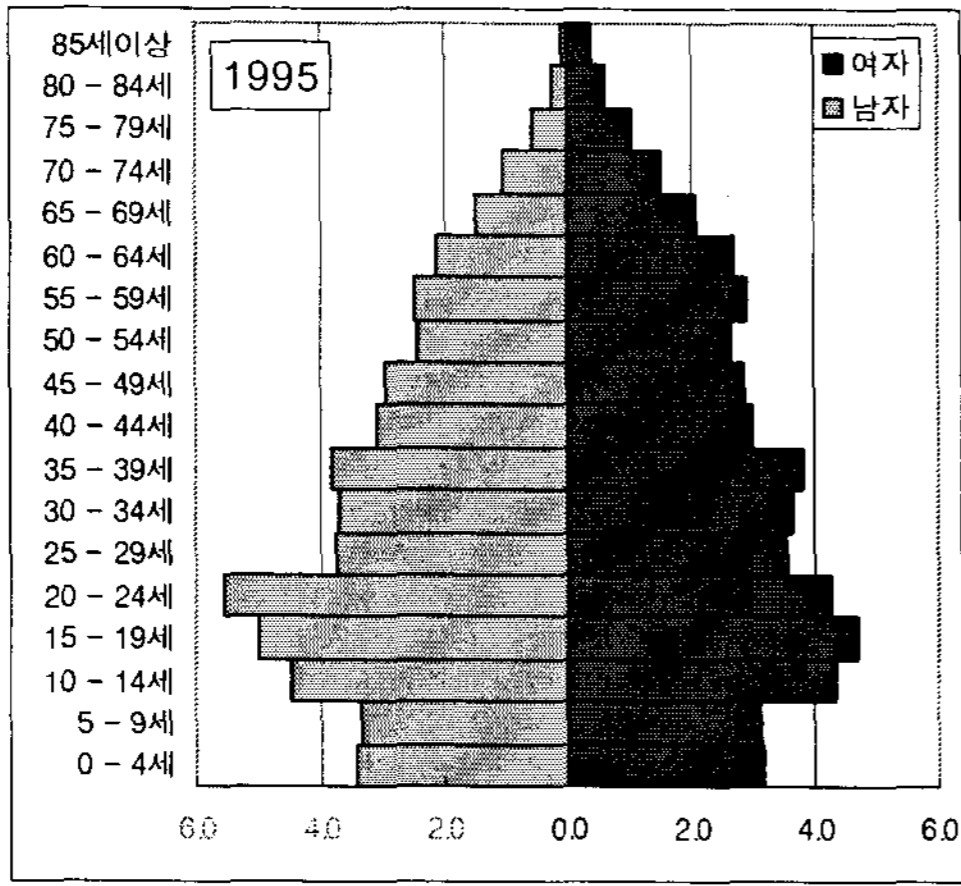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전라북도	1990	2005	2017*	15	12

자료: 장래인구추계결과, 통계청(2006)의 보완 주) * 본 연구에서 추정된 연도

(4) 인구피라미드 변화

1995년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형태에서 2005년 현재 방추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 출생률과 사망률이 함께 감소하는 인구구조로 변화되었다. 2010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전출형의 표주박형으로 변화하다 2030에는 초고령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항아리형 모양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4-2> 전라북도 인구피라미드 변화



4-4.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 분석

(1) 출생/사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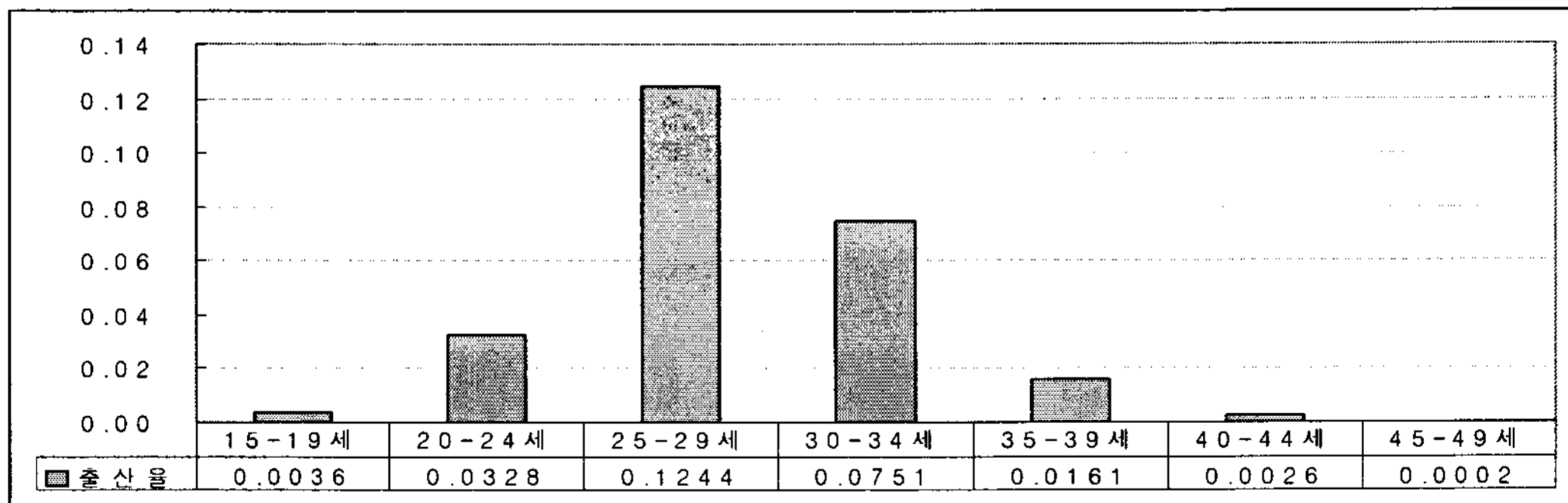
합계출산율(TFR)이란, 가임연령기간(15-49세)동안 여자 1명이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합계 출산율이 2.1 수준일 때 대체출산 수준이라 함)로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의 합에다 5배하여 산출한다. 전국과 전라북도는 합계출산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5년 전국은 합계출산율 1.08, 전북은 1.17을 나타내 전북은 전국보다 0.09% 높으나 출생아수의 감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4-4> 전국과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1.47	1.30	1.17	1.19	1.16	1.08
전북	1.58	1.41	1.26	1.26	1.23	1.17

자 료 : kosis(인구동태연보)

<그림 4-3> 전라북도 연령별출산율(2003)



<표 4-5> 가임여성 인구 비율과 출생아수 변화

	전국	전라북도
전체인구에 대한 15-49세 여성비율	27.94	24.89
전체인구에 대한 25-29세 여성비율	3.92	3.28
전체인구에 대한 출생아수 비율	8.89	8.24
출생아수 증감율(2004-2005)	-7.98	-9.38
출생아수 증감율(2000-2005)	-31.21	-37.37

자 료 : kosis(주민등록인구자료).

전라북도의 출생아수 감소율이 인구감소율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2000-2005 인구증가율은 -5.7%인 반면 출생아수 감소율은 -37.3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인구구조하에서 전라북도의 자연적 인구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단기적인 인구정책은 무용하게 될 것이다.

<표 4-6> 전라북도 출생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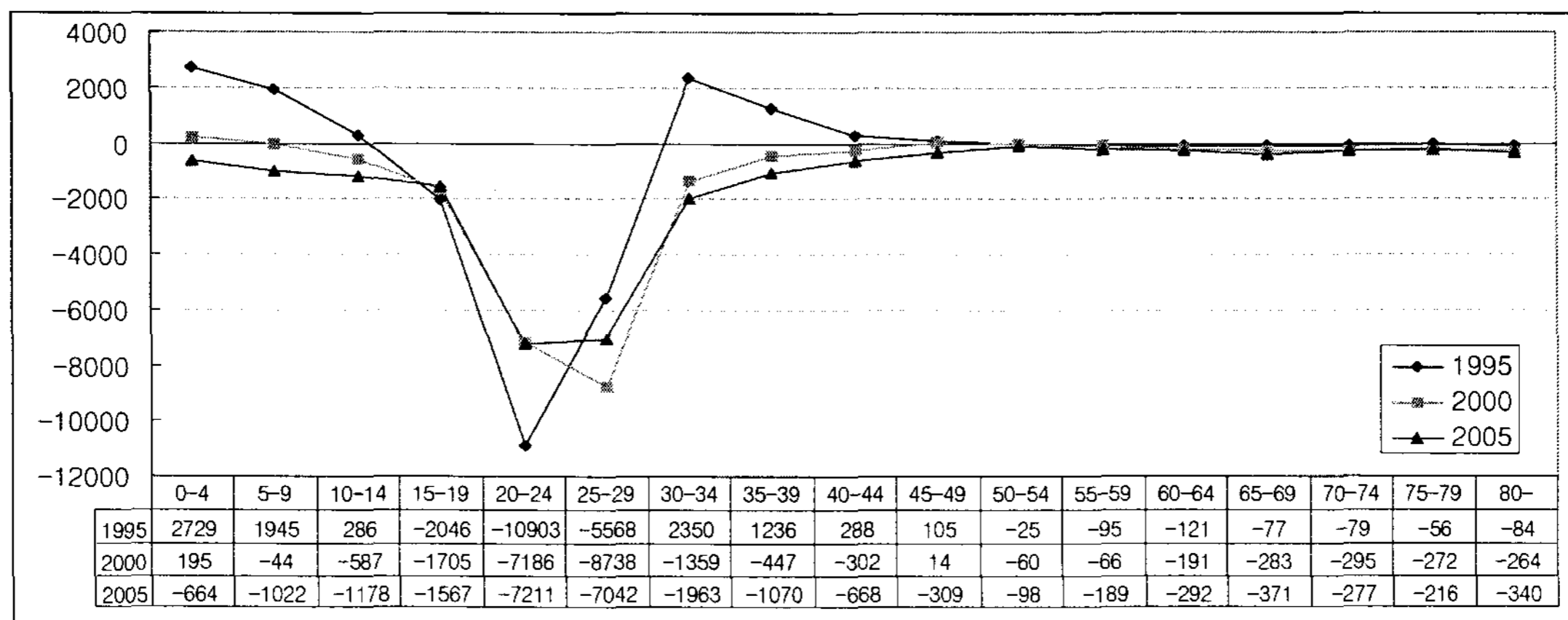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2005
출생아수	24,934	21,991	19,022	18,243	17,082	15,617	-9,317
출생아수증감율	-	-11.80	-13.50	-4.10	-6.36	-8.58	-37.37

자 료 : kosis(주민등록인구자료)

(2) 인구이동분석

2005년 현재 전라북도의 시도간전입은 74,465명 시도간전출은 98,942명으로 순전입인구는 (-)24,477명이며 이는 2005년 전라북도 총인구의 1,885,335명(주민등록인구자료)의 1.3%가 전출한 것이다. 1995-2005년의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의 순전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2005년 전출인구 중 20-29세 비중은 34.9%이며 2005년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25-29세로 나타났다.

<그림 4-4>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순전입 추이



5. 결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라북도의 인구구조의 특징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설명된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1,784,013명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5.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를 추계한 결과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2005년 인구의 6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4세는 현재의 19%에서 2030년의 11.1%로,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의 66.8%에서 60.1%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의 14.2%에서 28.8%로 변화될 것으로 나타나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년부양비가 48%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고 노령화 지수는 259.2%로 예상되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와 사회의 고령화 자체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10-14세 연령구간에서부터 25-29세 연령구간까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특히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율이 30%를 넘는 구간은 15-19세 구간(-34.6%), 20-24세 구간(-30.6%)으로 청년인구의 유출이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의 약화로 직결 된다고 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유출방지가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에는 공간이 개재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공간의 주체는 인구이다. 지역의 성장과 쇠퇴는 인구증감에 의해 대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장지역에는 고학력의 젊은 층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쇠퇴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동성향이 낮은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이동의 유인을 단순히 말한다면 이동지역의 매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동지역의 매력은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20-29세 연령의 유출은 2005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의 1.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문제가 심각하다. 혼인연령인구의 감소로서 출산감소를 수반하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노령화의 요인으로 작용. 그리고 이 결과는 전라북도의 노동량 및 노동생산성¹⁰⁾의 감소라는 파급효과를 거쳐 지역경제발전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을 창출하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증대할 수 있다. 인구전출의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전출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

10) 노동생산성 감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양적 감소이며, 둘째는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자본의 감소로 노동의 질적 수준 저하이다.

대하여 성/연령/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군부의 경우는 청년층의 유출과 함께 노년층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상황이며 특히 노년인구의 남녀 성비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노년인구에 대한 성 구분적인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인구 피라미드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2030년의 전라북도 인구피라미드를 볼 때 곧 붕괴될 것 같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있어 청년층 인구문제와 노년층 인구문제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령화는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노령화의 정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젊은 연령의 인구유출로 인하여 노령화의 정도가 타 시도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동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며 저축률의 감소 및 노인부양비 증대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문제를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노동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과 훈련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교육훈련,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향후 실버산업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전략산업으로의 육성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혼인연령의 상승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전라북도 평균초혼연령은 2000년도에 남, 녀가 각각 28.8세, 25.7세 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30.8세, 27.2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시의 모의 평균연령 상승하고 있어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중의 하나가 연령별 미혼인구가 20대와 30대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률이 추가적인 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보육과 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저연령 아동의 보육 서비스 질적 강화, 지역보육지원센터 정비, 보육여성에 대한 파트타임 근무 확대, 기업에 대한 보육여성 고용 인센티브 제공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자홍,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2002년.
- 김민경, 『인구센서스의 이해』, 글로벌, 2000년.
- 김범식의1, “지방화시대의 지역통계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년 2월.
- 김일현; 최봉호, “장래 인구추계와 인구학적 특징”, 한국인구학회지, 14(1), pp.70-103, 1991년.
- 김창현외3, 『농촌정주생활 여건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
- 김태현, 김동희, 정구현,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한 시군부별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 통계연구, 제11권, 제2호. 2006년.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2년.
- _____, 『농외소득증대증장기계획』, 2000년.
- 리기성, 『인구학개론』, 한국문화사, 1999년.
- 문형표외6,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년.
- 배경화, 김태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5년.
- 산업자원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2003년.
- 양장수,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방안: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환경변화와 이에대한 대응”,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제2권, 2호, 1995년 12월
- 이상림, 조영태, “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지, 28(1), pp.149-172, 2005년.
- 이지연, “센서스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기대인구 추정기법”, 통계청, 통계연구, 제10권 제2호. pp.1-29, 2005년.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 최성언, “남가주 지역의 미래예측: 인구, 주택 및 고용을 중심으로”, 국토정보, 9월호, 1996년.
- 최숙희외1, “획기적인 출산을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_____, 『장래인구추계결과』, 2006년.
- _____,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2005년.
- _____, 『인구동태연보』, 2005년.

_____, 『장래인구추계』, 2001년.

하상근.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3호, 2005년.

한무호, 『충청남도 인구분석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1999년.

www.census.co.kr

<http://kosis.nso.go.kr>